

할렐루야! 나의 반석이시요 방패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세상이 혼란하여 전쟁과 폭력이 난무하며 질서가 무너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지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풀이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사무엘하 22장 3절

미 Z세대에게 '낙태 반대'는 "사회 정의" 실현의 일환

BBC, 미 Z세대의 사회 정의 실현의 미당이 된 생명 살림 문화 소개

미국에서 '제너레이션 Z (Gen-Z)', 이른바 Z세대 임신중지(낙태) 반대 활동가들에게 임신중지권을 둘러싼 싸움은 신념의 문제라기 보단 사회 정의 실현의 문제에 가깝다.

Z세대는 199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초반에 태어난 이들을 말한다. 밀레니얼 세대의 뒤를 잇는 개념이다(Anti-abortion Gen Z-ers see cause as social justice).

노아 슬레이터는 자신이 지난 5년 동안 어림잡아 50차례는 미국 대법원을 방문했을 거라 말한다. 올해 스무 살이 된 대학생 슬레이터는 친구들과 늘 그 자리에 있는 조형물마냥 대법원 앞 계단을 자주 찾는다. 이들은 웃음을 맞춰 입고 팻말을 손에 든 채 한목소리로 외친다. '미국 헌법에서 임신중지 권리를 삭제하라고 말이다.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뒤집으며 임신중지권 보장 여부를 각 주의 선택에 맡겼던 그 날, 슬레이터는 "다들 서로를 끌어안았고 난 울음을 터뜨렸다"고 했다.



다. 이렇듯 임신중지 금지는 아직 소수 의견으로 여겨지지 않지만, 일부 주에선 이미 현실이 돼 가고 있다.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태어난 Z세대 임신중지권 반대 활동가들은 이 같은 싸움을 끝까지 이어갈 것이라고 맹세했다. 이들은 임신중지 금지법이 단순히 불법화되는 게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되길 바란다.

이 젊은이들에게 임신중지 금지는 단순히 종교적인 차원이 아니라 정의의 문제다. 그런가 하면 배아를 포함한 모든 존재에게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일이기도 하다.

캠페인 그룹 '데모크라츠 포 라이프(Democrats for Life)'에서 활동하는 제스 미스는 스스로 단순히 '생명권'을 지지한다기보다 '모든 생명'을 지지하는 쪽에 가깝다고 설명한다. 자궁에서부터 무덤까지, 모든 것의

살을 지지한다는 이야기다. "솔직히 이 문제에 눈이 뜨인 건 지난 2020년 즈음이었어요." 올해 스물여섯 살인 미스는 '조지 플로이드' 사태를 언급했다. 백인 경찰관이 흑인 시민을 제압하다 숨지게 한 사건이다. 이 사건 이후 미국에선 대대적인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일었다.

"사회 정의와 관련된 여러 문제에서 저는 왼쪽에 더 기울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모든 문제들이 서로 얽혀 있는 걸 깨달았죠. 우리가 탄생 이전의 삶을 존중한다면, 탄생 이후의 삶도 존중할 수 있다는 것도요."

미스는 이 같은 관점이 총기 문제와 인종차별 문제까지 다시 돌아보게 한다고 설명했다. 많은 임신중지 반대 활동가들은 아이가 없어도 개인적인 경험 덕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한다. 미스는 중국에서 태어났다. 중국이 1자녀 정책을 고수하던 시절이다. 그리고 생후 7개월 즈음 미국 펜실베이니아에 사는 백인 싱글맘에게 입양됐다. 미스의 가족은 종교를 믿진 않았다. 미스의 어머니는 임신중지권을 지지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미스는 이후 가톨릭 계열 고등학교에 진학했다.

"중국의 1자녀 정책이라든가, 로 대 웨이드 판결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살 권리'와 '태어날 권리'는 완전히 빼앗기게 돼요. 그게 제가 발견한 일종의 공통점이죠. '살 권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거요." 슬레이터는 가족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탁 보호하거나 입양하는 걸 보며 자신의 임신중지 반대 입장이 확고해졌다고 말했다.

(2면으로 계속)



코비드 팬데믹 상황, 아프리카는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였나?

로잔운동, J.K. 아사모아 가두 총장, 성경적 변영과 건강 및 인간의 변영, 고통의 의미 소개

COVID-19 대유행의 발발은 여러 세대에 걸쳐 기독교 신앙을 포함한 많은 노력, 문제 및 사회 제도에 대한 참고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 중 하나는 변영과 웰빙에 대한 성경의 약속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들은 건강과 변영의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 "생명이 있으면 - 건강을 의미, 모든 것을 가진 것이다"는 최근 변영에 대한 설교로 이어진 인기 있는 아프리카 속담이다. 게다가,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는 구절이 성경에 많이 있다(신 28:1-14 참조).

기독교 맥락에서 변영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좋은 부분은 '도둑'의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하는' 사명과 대조적으로, 인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변영이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풍성한 삶'이라는 것이다(요 10:10).

건강과 웰빙을 회복한 좋은 예가 마가복음 5장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에 나온다. 그 이야기에서 그 사람의 삶은 귀신 들림으로 인해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다"(막 5:5). 그는 귀신을 쫓아내고 그를 환난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난다. 그 만남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현장을 보러 왔을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웃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아" 있는 것을 본다(막 5:15). 이는 그의 이전 상태와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아프리카 일부 지역의 빈곤, 굶주림, 불결함 등 인간의 고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J. 콰베나 아사모아 가두(Kwabena Asamoah-Gyadu), 가나 레곤에 있는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의 총장이자 아프리카 기독교와 오순절/은사주의 신학을 가르치는 배타와 그라우(Baëta-Grau)석좌 교수는 아프리카 상황에서 성경적 변영과 인간 변성의 교차점을 탐구해 보고자 한다. 그는 아프리카의 상황에서 변영, 건강 및 웰빙은 단순히 사회경제적 범주뿐 아니라 신학적 의미가 더해져 있다고 말한다(PROSPERITY, HEALTH, AND HUMAN FLOURISHING IN AFRICA: UNDERSTANDING THE THEOLOGICAL IMPLICATIONS OF SUFFERING).

(3면으로 계속)



시론 이봉진 목사 3면



푸른초장 문성록 목사 4면



교회선교의 선순환 조중용 선교사 13면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 | 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성화, 성구약자, 크리스탈강대상, 성가대·목사까운 (323) 737-7699 인터넷 쇼핑몰: www.lachristianbookcenter.com E-mail: cbc0191@hotmail.com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베데스다치과 Bethesda Dental 예약문의 646.422.7330 201.431.9753 353 Lexington Ave, Ste 1600-2 New York, NY 10017

2022 전문강사스쿨 신입생 모집요강 [성경읽기를 돕는 Bible Reading Guide] 01 입학자격: 구약/신약 성경방을 수료하신 모든 분 02 제출서류: 입학원서, 성경방 수료증 03 스쿨일정: 2022년 9월-2023년 1월(약 5개월간 주 1회 수업) 04 강의방법: ZOOM 05 특징: 목회자분들에게 성경의 정경급 지극(모건, 선교사, 사모, 신학생 등) 06 사차별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Two Track School Course LA5기 스쿨은 미주와 아시아를 고려하여 Two Track School Course로 동시에 진행하여 동부 시차에 개신 분들도 7pm(현지시간 기준)에, 서부도 7pm(현지시간 기준)에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서부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BST(4pm PST)으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박재니 전도사(213-220-6729, Jenny515280@gmail.com)

'기독교 문화사역'

어떻게 하는지 모르신다고요?

유튜브에서 검색하세요!



좋은책 읽어주는 그레이스타임

쉽고 재미있는 어린이들의 성경이야기 순삭성경



미주크리스천신문사의 문화사역부 히즈핑거는 기독교 콘텐츠제작, 기독교 굿즈제작 등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구매문의, 광고문의, 사역문의는 info@chpress.net 혹은 718-886-4400 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인 칼럼

요셉을 보았는가?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요셉을 보았는가? 나는 보았다. 엄밀히 말하면 요셉과 같은 분을 필자는 분명히 보았다. 먼저 요셉 이야기부터 해보자. 요셉은 고난의 사람이었다. 그는 자기에게 다가온 지독한 고난의 이유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다. 왜 그랬을까.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어 어떤 분이신 줄 알았기 때문이다. 선하신 주권자 하나님께 고난의 이유를 묻기 보다는 필요없었다. 그는 신비의 영역을 침해하면서까지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가 오늘의 고난에 연연하지 않았던 또 하나의 이유는 그에게 꿈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형들이 미워해서 던져 넣은 구덩이에서도, 보디발 집에서의 집요한 유희와 어이없는 모함 가운데도, 사 람들에게 잊힌 감옥에서도 그는 어떤 상처받지 않았다.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꿈이 있었기 때문이다.

요셉의 꿈은 이랬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꾸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라" 요셉은 그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했다가 그들로부터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라는 핀잔과 함께 극한 미움을 받았다. 그 정도면 가만히 있어야 하는데 또 꿈 이야기를 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꾸즉 해와 달과 열 한 별이 내게 절하더라" 이번에는 아버지 야곱에게까지 말했다가 형뿐만 아니라 아버지로부터도 꾸지람을 받았다. 그러면서도 야곱은 아들의 꿈 이야기를 마음에 담아 두었다.

'위에서 앞으로'는 필자가 섬기는 교회 2층에 있는 작은 역사 공간의 이름이다. 이 땅의 역사는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 시작한 것이며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로 그렇게 명명(命名)하였다. 그곳에는 원로목사님이셨던 고(故) 장영준 목사님의 생애와 사역을 정리해 놓은 몇몇 기록, 사진, 그리고 유품들이 있다. 거기에는 필자가 목사님을 생각하며 써 놓은 이런 글도 있다. "요셉의 비전을 가진 사람: 요셉은 비전의 사람이었다/ 기독교 역사에 요셉의 비전을 가지고 요셉처럼 쓰임 받은 사람이 적잖이 있으리라/ 우리는 가까이서 정말 요셉 같은 분을 보았다/ 장영준 목사님. 영어 이름은 Joseph Chang 이시다/ 애굽이라는 이방 땅에서 고통이 많았으나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요셉처럼/ 미국이라는 이민 땅에서 역경이 많았으나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목사님/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하셨다/ 우리 자녀들이 요셉의 꿈을 가지고 이루게 하소서/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게 하소서/ 그리고 그의 나라와 영광 드러내게 하소서" 이런 찬송 내용도 이어서 적어 놓았다. "주님 우리를 이 땅 위에 보내셨으니/ 열방 중에 주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 우리에게 이 땅을 맡기셨으니/ 온 세상 끝까지 주 복을 전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요셉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소서/ 이 땅 위에 요셉처럼 쓰여지게 하소서/ 이 꿈과 믿음 위에 이제 모두 일어나/ 주님 나라 이루게 하소서"

지난 금요일 제 1회 요셉 장학금 수여식이 있었다. 목사님이 꿈꾸셨던 장학재단이 목사님의 사모님을 통해 세워졌고 올해 10명의 장학학생이 선발된 것이다. 필자는 설교를 통해 장학금만 받지 마시고 이 이민 땅에서 요셉처럼 비전을 갖고 사시라고 도전 하였지만 그것은 미래의 일이 아니었다. 그날, 그들의 이야기와 찬양을 들으면서 오늘의 요셉들을 이미 선명히 볼 수 있었다.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인간만이, 진정으로 '존엄'하다

AP, 살인자에게는 용납되지 않는 '안락사' 소개

카탈루냐에서 안락사(euthanasia)는 흔한 일이다. 작년 6월 스페인에서 안락사가 합법화된 후, 172건의 안락사 중 3분의 1 이상인 60건이 카탈루냐에서 시행되었다. 현재, 카탈루냐에서 안락사 문제의 중심에 있는 사람은 사바우(Marin Eugen Sabau)이다. 그는 죽고 싶어 한다. "저는 하반신 마비 환자입니다. 손은 45바늘이나 꿰맸고, 왼팔은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 몸에는 나사가 있어 가슴 아래로는 감각이 없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법에 따라 2명의 의사와 2명의 지역 정부 대표인 의사와 변호사가 그의 요청에 동의했다. 그의 요청은

이례적으로 서둘러 처리되었다. 경찰들은 그의 안락사 시행에 대해 타라고나 법원에 반대성명을 제출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의 안락사 시행일은 7월 28일로 결정되었다. 다만, 최근 법원은 해당 안락사 시행에 일시 중단을 결정했고 안락사 시행은 연기되었다. 이는 매우 예외적인 일이다. 왜 이런 결정이 이루어졌을까?

(Spain: where the right to die trumps the right to justice: Should a murderer escape his day in court by asking for euthanasia?)

경찰들은 타라고나 법원에 희생자를 위한 정의라는 관점에서 안락사를 반대하는 성명을 제출했다. 그러나 담당 판사는 "안락사법이 판사에게 안락사의 시행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법원이 그가 요청한 조력사 절차의 중단을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결했다. 이후 위 결정을 내린 판사가 개인적 사유로 인해 부재한 상황에서 해당 사건을 담당하게 된 다른 판사는 안락사 시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결정을 내린 상태다.

타라고나 법원 판사는 안락사 시행 가부의 결정 권한이 법원에 있지 않다고 했다. 나아가 안락사법이 임시 구금 상태에 있거나 사법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적용 배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

지 않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미성년자 혹은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사람만이 본법에 따른 안락사를 요청할 수 없다. 따라서 사바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안락사 시행 중단 대상이 아니라고 판사했다.

판사는 본 사안에는 "기본권 충돌"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자유의지에 따른 그의 죽음에 대한 권리가 정의를 요구하는 피해자의 권리보다 우선한다고 보았다. 판사는 해당 판결에서 신체적·도덕적 존엄성, 개인의 자율에 대한 권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카탈루냐에서는 매우 극단적으로 안락사 근본주의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사바우의 죽을 권리는 다른 모든 것을 압도한다. 그는 문명사회에 가장 기본적인 규범을 어기고 타인을



범행 전, 총기를 들고 유트브를 통해 범행을 알리는 사바우

살해하려고 했다. 우리 사회가 그의 행동이 파괴적이고, 위험하고, 잘못되었다고 선언할 권리가 없는 것인가? 피해자들은 그들의 고통을 인정받을 권리가 없는가?

사바우는 사람들을 죽이려 했다. 그들 중 몇 명은 심하게 부상당했다. 그는 자신의 범죄

를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사회에 용서를 구해야 한다. 만약 그가 이러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안락사는 그에게 결코 '존엄한' 죽음을 가져다주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인간만이, 진정으로 '존엄'하다.

미 2세대에 '낙태 반대'는...

(1면에서 계속)

그는 다른 이들에게도 이 같은 일들을 권한다. 슬레이터는 임신중지를 규제하는 게 가난 속에서 자랄 아이들의 숫자를 늘릴 거란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우리 집엔 다양한 종류의 아이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아이들에게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하죠. 전 그게 너무 거슬러요."

미국 정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으로 미국에선 40만 명 넘는 아이들이 위탁 가정에서 살고 있었다. 이 중 5만 8000여 명만 입양됐다.

슬레이터는 임신중지를 금지하면 미국 사회 보장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해질 거란 사실을 알고 있다고 했다.

임신중지 찬성파와 반대파 젊은이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

이 있다. 이 문제를 평등과 정의의 위함 싸움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들은 '누구의 권리가 더 중요한가'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갖고 있을 뿐이다.

정치 집단 '젠지 포 체인지(GenZ for Change)'의 부국장 빅토리아 하멧은 임신중지를 여성 건강 지원의 일환으로 본다 고 했다. 그는 미국 내 임신중지 시술 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사회 정의를 추구하는 것과 임신중지를 반대하는 건 본질적으로 모순되는 문제입니다. 여성들에게 신체 자율권을 포기하라고 압박하는 것과 다름없거든요."

하멧은 "출산 중 목숨을 잃을 가능성을 감내하라고 하거나, 원치 않는 존재를 몸에 품고 있으라고 강요하는 것 역시 어떤 의미에서도 사회 정의가 될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페이스 엘리머의 의견은 다르다. 올해 스물다섯 살, 텍사스 출신으로 생물학을 전공한 엘리머

는 임신중지를 지원하는 펀딩이나 정책 등이 여성들이 출산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돕는 임신 지원 센터로 옮겨가길 바란다 고 했다.

이런 지원 센터들은 대개 종교 기관과 연계돼 있고, 기부금을 통해 운영된다. 임신중지를 고려하는 여성들에게 무료 검사와 초음파, 상담 등을 제공한다. 그러나 임신중지 지지 집단들은 이 같은 지원 센터들이 여성을 설득하기 위해 임신중지 시술의 안전성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린다고 주장했다.

많은 임신중지 지지자들은 임신중지 금지법이 소수자 여성에게 특히 악영향을 끼칠 거라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흑인인 엘리머는 인종정의와 임신중지권을

연는 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엘리머는 "임신중지는 흑인 커뮤니티에서 가장 생명을 많이 죽이는 요소"라고 했다. 미국에서 임신중지 시술을 받은 이들 중 40%가 흑인이라고도 덧붙였다. 흑인이 미국 전체 인구의 12%에 불과함에도 말이다.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에 따르면 흑인 여성들은 임신 관련 문제로 사망할 확률이 백인 여성보다 세 배 높다. 임신중지 지지자들은 임신중지 금지법이 흑인 여성의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하지만 엘리머는 그렇다고 해서 임신중지를 지지하는 게 이런 건강 격차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순 없다고 강조했다.

플로리다의 임신 지원 센터에서 일하는 스물네 살 줄리아 텔루스는 열여섯 살 때 성폭행을 당한 이래 임신중지 반대 세력을 지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임신중지 반대 운동가들은 텔루스가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줬고, 강간범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게끔 해줬다.

"당시 범죄에서 살아남은 이후 '저항 능력이 없는 자궁 속 생명체'에게 공감할 수 있게 됐죠. 임신중지는 더 나이가 많고 더 발달한 인간이 더 어린 존재에게 지지르는 폭력이나니까요."

(9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편집국장: 김재상. LA지사장: 이성자.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FAMILI STUDY Food And Microbiome Longitudinal Investigation.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참여자 모집 안내.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NYU 의대 웨일리 연구팀(총책임자: 안지영 교수)은 세계 최초로, 여러 민족의 식습관, 환경, 박테리아와 만성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에리자베스 한인교회 담임목사 청빙. 뉴저지 중부 지역에 위치한 에리자베스 한인교회는 47년의 역사를 통해 복음과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서 열린 마음과 뜨거운 열정으로 새롭게 이끄실 5대 담임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아프리카는 '고통'을...

(1면에서 계속)

아프리카의 기독교 상황

아프리카의 기독교 상황에서, 특히 오순절과/은사주의적 흐름 내에서 마가복음 5장과 같은 이야기는 사회에서 종교의 기능에 반항을 일으키기 때문에 중요하다. 악마의 고통에서 회복으로의 전환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일어나며, 이는 아프리카의 오순절 신학에 따른 목회적 돌봄에서 강조되는 것으로 그 개념적 성격이 잘 드러난다.

게리 터 하르(Gerrie ter Haar)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국내외에서 아프리카인들은 형이상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변영과 건강 그리고 웰빙 문제에 접근한다.

유럽에서도 대부분의 아프리카 기독교인들은 새로운 나라에서 겪게 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영적 치유를 위해 아프리카에서 유래한 교회를 찾는다. 영적 치유는 영적 신비주의 세계관이 만연한 종교적 치유의 한 형태이다. 이것은 아프리카의 많은 새로운 종교 운동이 그렇듯이, 아프리카인이 주도하는 오래되거나 새로운 교회의 두드러진 특징이며, 이 교회들은 질병 및 기타 악의 발현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에 맞는 치유 방법을 실천한다.

기독교 선교와 복음 전도는 그 구원을 위한 회심(conversion)의 메시지 안에 육체적이든 영적이든 고통과 고난의 경감을 포함해야 신성한 명령을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아프리카 세계관에서 예베소서 3장의 '통치자들과 권세(principalities and powers)' 개념에 대한 최근 연구에서, 다니엘 K. 다르코(Daniel K. Darko)는 아프리카 기독교인들이 "성령이 개인과 공동체를 충만하게 하고, 인도하며, 능력을 주어 자신의 직업과 개인의 삶에서 탁월하게 하며, 그들의 변영을 방해하려는 영적인 대적 세력을 극복하게 해준다"고 믿는다고 했다. 아프리카의 전통적 맥락에서 악과 고통은 모두 존재론적 문제이므로, 역술가(diviners)에게 고통의 근원을 진단하고 해결해 달라는 요청이 끊이지 않는다.

아프리카의 기독교 상황에서 고통은 악을 처리하고 신성한 변영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을 여는 수단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아프리카의 기독교 상황에서 적절하게 이해된 구원은 죄의 용서, 평화, 활력,

건강을 포함한다. 이 모든 것은 우주 조화의 맥락에서, 히브리어 살롬과 아프리카 단어 우분투(ubuntu)로 가장 잘 표현된다.

예를 들어, 코비드19 팬데믹은 많은 아프리카 사회에서 형이상학적 악의 측면에서 문제가 되었다. 그래서 확산을 막기 위해 기도할 사람들을 동원하는 것이 핵심적인 대응책이 되었다. 비서구 세계에서 오순절/은사주의적 영성을 널리 받아들이게 한 것은 성령에 의한 능력과 육체적 변영을 동반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칭의의 통전적 개념이다. 아프리카 기독교 신학은 일부 변영 설교자들의 물질주의적 지향을 지지하지 않지만, 아프리카인들은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약속 성취로서 변영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육체적, 영적 축복을 받아들인다.

힘과 활력의 세계

아프리카에서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부정적인 사건들은 보통 초자연적인 원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 악은 죄, 금기(taboo)의 위반, 조상의 책임 유기, 저주로 인해 올 수 있다. 악은 또한 마녀와 같은 부정적인 통치자와 권세(principalities and powers)의 행동을 통해서도 발생한다.

그러므로 아프리카에서 많은 사람이 '자신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권세를 끊임없이 찾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사람들은 권세를 통해 '살아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며, 건강하고, 가난과 때때로 사람을 괴롭히는 기타 모든 불행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다.

아프리카 상황에서 모든 형태의 질병과 불행은 권세의 부족과 관련이 있으며, 따라서 종교적 자원을 사용하는 주요 목적은 권세를 찾는 데 있다. 영적 힘은 사람들이 사람들이 스스로는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사물과 상황을 통제할 수 있게 해준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역술가와 독립적인 교회는 종종 권세를 약속하거나, 그들의 이름에 권세와 관련된 단어를 사용한다.

같은 이유로, 전염병이 한창일 때 아프리카에서는 하나님의 보호와 건강, 활력을 약속하는 성경 구절들이 주목받았는데, 예를 들자면, 시편 91편 1-3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

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므로 다"와 같은 구절이다.

'치명적인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라는 언급은 많은 아프리카 기독교인 사이에서 큰 공감을 얻었다. 왜냐하면 정교한 의료 시스템을 가진 세계 강대국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 바이러스가 초자연적으로 말해서 과소평가 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악의 현실 속에서 권세와 활력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 모두는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라는 중요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업은 쇠퇴하고 수입은 타격을 입었다. 건강이 악화되고, 많은 사람이 사망했다.

권세와 악으로부터 효과적인 보호를 찾는 것이 "현대 문제에 대한 원천적인 해결책을 약속하는 새로운 종교 운동의 인기"에 대한 이유"라고 스티븐 엘리스(Stephen Ellis)와 게리 터 하르(Gerrie ter Haar)는 말한다.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영계를 조종하는 사람들이 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자신을 보호하고 치유할 수 있는 권세와 악의 형태로 효과적인 치료법을 그와 같은 영역에서 찾는다."

팬데믹과 기독교인의 생활

팬데믹 초기에 사람들은 백신에 대한 올바른 과학적 돌파구가 달성될 때까지, 손을 자주 씻고 공간을 소독하고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는 비약제학적 절차에 의존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했다. 이는 빈곤과 강한 공동체 의식 때문에 물리적 거리가 불가능하고, 약수를 거부하는 것이 모욕으로 받아들여지는 전통적인 아프리카 환경에서는 그 방법이 통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가나(Ghana)의 아칸족이 약수를 거부하는 것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음을 나타낸다.

아프리카 교회는 현재 평범한 교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 의료적 어려움과 미래의 불확실한 시기에, 목회적 리더십과 돌봄을 어떻게 제공하려고 하는가? 교회는 상담하고, 목회적 돌봄을 실질적인 방법으로 제공하며, 필요한 경우 다른 사람들을 물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어떤 결정과 정책을 세워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원칙을 따르려면 교회의 개입이 비차별적이어야 한다. 우리의 공적 신학(public theology)은 악에 맞서 다가 다친 이들에게 차별 없이

대응함으로써 공익을 위해 섬겨야 한다.

팬데믹은 또한 세계 기독교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특히 악의 수수께끼에 직면한 상황적 표현과 반응에 영향을 미쳤다. 고통과 질병 그리고 경제가 쇠퇴하는 시기에 변영이라는 기독교 개념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코로나19 팬데믹은 공적 영역 내에서 기독교인의 삶과 표현 방식을 영구적으로 중단시켰다.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 승천, 오순절과 같은 신앙의 주요 랜드마크들을 기념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던 시기에 팬데믹이 강타했다. 이러한 기독교 교회력의 주요 행사가 종교 예배나 미사 또는 사교 모임의 형태로 축하 되어야 했던 시기에, 모든 대면 모임이 중단되었다.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정치 및 사회생활과 종교 생활에도 지장을 주었다. 고통과 관련하여 그러한 부정적인 것이 닥치면 사람들은 해답을 찾는다. 그런 점에서 신학은 공익을 위해 봉사해야 하며, 사회적 소비를 위해 길들여지면 안 된다. 팬데믹 기간중, 구원과 악의 세력으로부터의 보호에 대한 기독교의 약속은 팬데믹 상황을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관심 대상 중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팬데믹의 발발이 한편으로는 변영과 건강, 다른 한편으로는 고통과 고난 사이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우리의 믿음에 도전을 주었다는 것이다.

글로벌 교회를 위한 성찰

복음 전파와 함께 동반되는 핍박 외에도, 사회적 불의와 권력 남용을 비롯한 여러 원인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세계 교회 사명의 핵심은 인간의 삶과 세상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므로 고통의 현실은 세계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전파할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방식으로 복음의 진리를 살피고 내도록, 전략을 수정하고 방법을 고안하도록 도전한다.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된다는 것은 세계 교회가 인간의 삶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한 세상 가운데 희망과 변영을 가져다주는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해야 한다.



시론

개는 개, 사람은 사람, 하나님만 하나님



이동진 목사
(성화장로교회)

교의신학 또는 이론신학이라고도 하는 조직신학에서는 신론, 인죄론, 구원론, 종말론, 교회론 등 기본교리를 가르친다. 즉, 여러 가지 커리큘럼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진리와 사실을 비롯해 하나님과 우주, 하나님과 인간관계 등을 짚어주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 구원, 종말 등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가르쳐 준다.

그만큼 조직신학은 신앙의 근본과 기준이 되는 학문이다. 그래서 교회는 다양한 성경공부와 설교, 개인묵상 등을 제시하고 안내하면서 기초가 튼튼한 성도들이 되도록 가르치고 있다. 문제는 배우고 받아들여야 하는 성도의 입장에서 '어려워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 요약해 보았다. "개는 개이고, 사람은 사람이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다." 반려견과 함께 생활하는 분들이 오해할지 모르지만 이 단순정의를 기독교의 기본이고, 교회의 기초이고, 성도 개인의 근본이다.

80년 만의 물난리를 당하면서 서울 강남의 '고급'이 영화 기생충에 등장한 하층민의 상징인 만리하의 물난리 화면과 같은 모습이 되어버렸다.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개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된 세상,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목적의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이 세상이 불과 몇 시간 만에 초라한 밑바닥으로 떨어졌다. 물난리 난 영상을 보는데 마치 창세기 1장 이전의 '혼돈(混沌, Chaos)'의 시대를 감각하지 못하고 살고있는 이 시대를 향한 경고 사이렌소리가 들려오는 듯 하다. 빌딩이 서 있고, 사무실은 활발하고, 만남들과 사이버 대화들이 공존하면서 질서있게 진행되는 이 시대를 '질서 있는(Cosmos)' 인류사회라고 자만하던 이 땅에 비구름이 잠시 열렸을 뿐인데 모든 질서는 혼돈으로 영커버리다니. 순식간에 창조 이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서울의 강남을 우리는 보았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고구라진 문명의 현장을 허망하게 바라보았다. formless, empty, darkness 창세기 1:1의 이 세 단어가 2022년 서울 강남 한가운데 쓰여진 현상이 비루하고 비참하게 널려져 있는 영상 앞에서 망연 자실.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것을 사랑하며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교회도 건물물, 성도도 외모를, 능력도 결과를 보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듯 그제서야 감사한다고 고백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잊어버리고 내 방식의 사랑을 당당해하던 교회는 그동안 도대체 어떤 사랑을 내세우며 감히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말했던 것인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겉질'에 유혹당한 이브처럼 우리는 그 겉때기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기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서울 강남의 물난리만이 아니다. 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리고, 캘리포니아의 심각한 가뭄, 뜨거운 태양의 땅 Death Valley에는 '천 년에 한 번 확률'이라는 돌발홍수가 덮어버렸다. 간단히 기상이변(氣象異變)이라는 말로 인류의 무엇을 설명할 수 있을까? 전 세계의 기상이변 현상은,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창세기의 언어를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만 같다. 개를 예뻐하되 사람으로 대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나도 그 정도에 이를 수 있다고 자만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기독교의 기초교리인 조직신학이다.

물난리 난 곳을 청소하고, 보수하고, 다시 세운다고 될 일이 아니다. 다시 세워진 문명이 사람이 보기엔 '또 좋아 보일 수 있다' 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될 수는 없다. 시절의 변화와 현상들의 실체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상 속에서 개를 개의 자리로, 사람이 사람의 자리로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영광이셔야 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djlee7777@gmail.com

Latin America Future Mission Strategy and Leadership Forum

남미 기독교 지도자 초청 선교대회

리마 행사 Dec 9-14, 2022 (5박 6일)
페루 국가 조찬 기도회 Dec 10, 2022
남미 기독교 지도자 선교대회 Dec 12-13, 2022
Sheraton Hotel Convention Center, Lima, Peru

선택-쿠스코, 마추픽추 Dec 13-16, 2022 (3박 4일)
쿠스코 지역 목회자 연장교육 Dec 14, 2022
잉카의 도시 쿠스코 문화 유적지, 마추픽추 방문

참가 희망자는 이메일로 문의 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mail : iea@midwest.edu

주관: IEA 국제복음주의협회 Peru
공동주최: IEA 국제복음주의협회, Midwest University
협력: 페루 국가미래전략 연구재단, 페루 국립센마르코스 대학교(대학설립 1551년), KWMC, KWMA, KWMF, KIMNET
협찬: 페루 TV 방송국, CTS TV, CGNTV



목·양·칼·럼



한평우 목사
(유럽목회자세미나연구원 원장)

아름다운 삶

누가복음에서 우리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만나게 된다.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다고 했고,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린다고 했고, 웃는 자여, 너희는 애통하게 된다고 선언하셨다(눅 6:24-25).

이 말씀은 상산수훈인데, 누가는 마태와 조금 다른 시각으로 기록했다.

세상에서 부요한 사람, 배부른 사람, 웃을 수 있는 사람, 이들은 한 마디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자들은 대체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겪는 고난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된다. 강남에서 폭우로 인한 물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큰 시련을 겪었지만 부요한 자는 탄 세상의 얘기가 된다. 그들은 물

난리와 상관없는 높고 튼튼한 집에 거주하기 때문이다.

배부른 사람이란, 부요하고 넉넉하여 맛집을 찾아다니며 비싸고 특별한 음식으로 배를 불리는 사람을 지칭할 수 있다. 특별한 날에는 누구나 그럴 수 있다. 그러나 본인의 사람은 삶 자체가 거기에 모든 것을 맞추는 자를 의미한다. 한 끼에 상상할 수 없는 값을 지불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이다. 성경에 나오는 거지나 사마리아와 부자처럼, 기업가를 안내한 한 교우에 의하면 로마에서 두 사람이 점심을 먹는데 보통 몇 천 유로를 지불했다고 한다. 포도주 한 병이 몇 천 유로인데 매끼마다 찾다니 말이다.

그러나 사실 그런 자들의 웃음 뒤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슬픔이 있다.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의 성공은 수많은 자들의 실패를 디딤돌로 삼았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최고의 영웅 중

에 로마의 군인이자 정치가인 시저를 꼽는다.

그는 전쟁의 귀재이었다. 특히 19세기의 영웅으로 일컫는 나폴레옹도 그를 늘 흠모했다고 한다. 그러나 “시저가 영웅의 칭호를 받기까지는 고을 족을 백만 명 이상을 죽여야 했다”고 영국의 역사가 기본은 말했다. 그가 영웅이라는 찬란한 관을 쓰기까지는 그토록 많은 사람들의 피를 요구했다는 사실이다.

얼마 전에 호주의 커피 사업자가 이태리를 여행 중에 카페를 맛보고는 꿈을 꾸었다고 한다.

그는 어려서부터 맛에 대한 예민함이 있었는데 그 예민함이 카페에 집중하게 되었다.

그래서 자기만의 카페를 만들었고 점점 카페 점을 늘리게 되었고, 한국에만 매장이 100개가 넘었다고 한다. 그는 호주와 일본과 한국에서 지점을 점점 늘려가는 상황이라니 성공한 인생이다 싶다. 그러나

그의 성공을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

성도라면 성공의 정상에서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사람이 한국에서 빠른 시간에 지점을 눈부시게 늘려가고 있을 때, 한편에서는 그로 인해 눈물을 머금고 카페 점을 정리하는 자가 늘어났다는 사실이다.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헤아리라는 말씀이 아닐까 싶다. 성도의 신분이려면,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성공하고 웃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벌어 욕상에 올라가 큰 소리로 웃어젖히게 될 때,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라며, 욕상으로 올라가는 사람도 있다는 점이다.

이런 사람이 있음을 인지하고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한

다는 말이다. 성 프랜시스는 추운 겨울밤 밖에서 옷을 벗고 오돌도돌 떨면서 흠리스로 지내는 사람들의 처지에 동참했다고 한다.

이 시대 교회도 마찬가지로 아닐까?

어느 교회는 앓을 자리가 없지만 어느 교회는 찾아오는 사람의 기근을 당한다.

이에 대한 주님의 말씀은 연약한 자를 향해 긍휼한 마음을 가지라는 의미가 아닐까?

가진 자는 가지지 못한 자의 마음을, 웃는 자는 우는 자의 마음을, 배부른 자는 배고픈 자의 마음을 말이다. 그런 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그를 따르는 자마다 그 마음을 배워 실천하라고 하신다. 인젠가는 빈손으로 그분 앞에 서야 하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탐욕 때문에.....
chiesadiroma@daum.net

푸/른/초/장

문성록 목사
(포코노한인장로교회)



“분수”라는 말, 이는 우리가 흔하게 쓰는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분수’는 신자의 품성과 관련이 있으므로 예사로운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분수’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사물을 분별하는 슬기, 자기 신분에 맞는 한도, 각자가 이를 수 있는 한계’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레위 자손을 책망하면서, “~ 레위 자손들이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민 16:7)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렘 17:19-27절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안식일 성수’는 선민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임에도 유다 조상들에 의해 훼손되었습니다. 모세는 이유를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렘 17:23)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 신분에 맞는 한도’를 벗어났다는 얘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안식일 성수를 원하셨다는 것과 더불어 그들에게 주실 복도 예비하였음을 보여줍니다(렘 17:24-26). 그리고 만약 그들이 안식일에 금한 일을 계속하기를 고집하고 안식일을 예사롭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는 것을 말하였습니다(렘 17:27).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렘 18:1, 2). 따라서 토기장이의 그릇 만드는 현장을 직접 보게 하였습니다. 거기서 예레미야는 토기장이의 이상한 행동을 목격합니다. 토기장이가 정성을 다하여 만든 그릇이지만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그는 미련 없이 그 그릇을 부숴버리고 다시 그릇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무시하고,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외면하며, 하나님 대신 이방의 잡다한 신을 섬기는 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명예를 죄로 얼룩지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의 소행이 영 마

음에 들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왕위에 앉아 있는 왕들과 고관들, 그리고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자신의 분수를 몰랐던 것입니다. 자신의 본래 모습이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1. 우리는 토기장이가 빚은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으로 주를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사 64:8) “너는 거기에서 백성들에게

르고 맛대로 살아갑시다. 그들에게는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듯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자신의 불행한 신분을 한탄하며 삶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신의 처지를 올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것은 세상의 명예나 지위를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신분,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삶과 존재의 가치가 무엇인가”라는 것이지, 가난하다는 것, 지위

미국의 시민이 되어도 우리는 여전히 한국 사람이듯이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견에 좋은 대로 빚어진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2. 그 질그릇은 토기장이 손안에 있습니다.

토기장이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사용하시는 일은 하나님께는 매우 쉬운 일입니다. 손을 한번 뒤집거나 녹로를 한번 돌림으로써 진흙의 형태는 아주 달라져서 그릇이 되기도 하고 아무런 형태를 보이지 않게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운명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렘 18:4), “여호와와 말씀이 나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

는 베드로보다 더 나을 것 없고, 가룟인 유다보다 훌륭하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한 달란트 받은 종보다 나다고 자부할 수도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존재가 ‘질그릇’이지만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질그릇’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줍니다. 이는 참으로 감사할 일입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이 상처로 얼룩져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보잘것없는 질그릇이라도 하나님의 손안에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3. 토기장이는 그 질그릇의 상처를 압니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토산품을 수집하는 사람이 중국의 토산품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 곳에 가서 도자기를 구경했습니다. 그는 예쁜 꽃병을 집어 들고,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던 도자기에 관한 지식을 동원하여 “이 꽃병은 굉장히 비싸겠는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전시장의 판매원은 “그것은 50센트면 살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렇게 싼 것이.”, “물론입니다. 애초에는 값나가는 물건을 만들려고 했는데 흠집이 생겼습니다.”, “내 눈에 흠이 보이지 않는데요.”, “그러나 우리 주인은 그 흠이 어디 있는지 잘 압니다. 사실은 온전하지 못한 것은 내보내지 말라고 당부하셨지만 예쁘잖아요.”

아무리 훌륭한 도자기라도 상처가 생기면 그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누구도 그 상처 난 것을 돈을 주고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주 싼 값에 팔리거나 아니면 쓰레기통에 버려질 것입니다. 그것은 본래의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범죄 함으로 상처투성이가 되었듯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본래의 가치를 잃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큰 약점을 지니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질병이었습니다. 행 22:19, 20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테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이것이 바울에게는 큰 상처요 아픔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바울의 상처를 다 알고, 주님은 그런 사실을 아시면서도 그를 사도로 우뚝 세워 주셨습니다. 사람이 알면 놀림감이 되고, 주눅 들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아시니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고쳐 주십니다. 성령님의 위로와 안식을, 그리고 영원한 평안을 주십니다.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빚어지는 고통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필요하시면 다시 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 드실 때까지 버리지 않고 몇 번이고 고쳐 만드실 것이기에 그 아픔도 견딜 수 있습니다. 만일 토기장이의 그릇이 한 가지 용도에 못 쓰게 된다면 다른 용도로 쓰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흠으로 지으셨다(욘 33:6).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그의 손안에 들어 있는 진흙입니다(사 64:8).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흠이 어디 있는지를 잘 아십니다. 수많은 약점과 얼룩진 상처도 아십니다. 우리의 형편도 다 아십니다. 자!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더 열심히 살시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진정한 평안과 승리의 기쁨을 누립시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말씀의 큰 뜻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관한 말씀입니다. 질그릇이라고 다 같은 질그릇은 아닙니다. 토기장이의 손안에 있는 질그릇입니다. 따라서 토기장이는 그 질그릇의 상처와 아픔을 압니다. 하여 우리는 아무 염려 없습니다. 우리를 빚으신 토기장이이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기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질그릇이기에, 능히 하신 토기장이의 손에 붙들려 삽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있는 한 아무 염려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애정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버림을 받아야 할 만큼의 상처가 있다고 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더 진하고 애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릇이 그의 손안에 있기에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파상의 아픔도 만져주시고, 수월하게 고쳐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paulmoon315@gmail.com

자신의 분수를 알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18:1-10

전할 메시지를 받게 되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토기장이의 집에 보내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녹로에서 일하는 토기장이를 보았습니다(3). 그리고 토기장이가 어떻게 녹로로 일하는지를 관찰하는 중에, 거기서 진흙 덩어리가 그의 손에서 터지면 즉각 그것을 다른 형태로 바꾸어 버렸는데, 이르기를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4) 고 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창 2:7). 빚어졌다는 것은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지은 바 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분을 바로 이해하는 것, 곧 자신의 분수를 바르게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으며,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습니. 토기장이가 흙으로 질그릇을 만들듯이 말입니다.

토기장이의 교훈은 이렇듯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가를 잘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이 교훈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소중히 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자신의 처지도 모

나 명제가 없으므로 주눅 들어 살라는 말도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분수를 바르게 깨달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지에 대한 법도를 배워야 합니다. ‘천방지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리석게 어쩔 줄 모르고 텀비는 상태’를 이르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을 일컬어 자기 분수도 모르는 사람, 자기 신분에 맞는 한도도 모르고 날뛰는 사람을 보고 찌집은 말입니다. 물론 질그릇은 좋은 그릇이 아닙니다. 값도 그리 비싸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깨어지기 잘하는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가 큰소리칠 주제도 못 됩니다. 아웅다웅 싸울 일도 아닙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질그릇이니깐요. 주인의 눈 밖에 나면 쓸모없이 버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주인의 결정에 달린 운명이며, 이 운명은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라고 한 말씀이 주는 교훈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등급이 생깁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신분은 누구나 같고,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는 점도 같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오래 살다가

구경했습니다. 그는 예쁜 꽃병을 집어 들고,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던 도자기에 관한 지식을 동원하여 “이 꽃병은 굉장히 비싸겠는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전시장의 판매원은 “그것은 50센트면 살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렇게 싼 것이.”, “물론입니다. 애초에는 값나가는 물건을 만들려고 했는데 흠집이 생겼습니다.”, “내 눈에 흠이 보이지 않는데요.”, “그러나 우리 주인은 그 흠이 어디 있는지 잘 압니다. 사실은 온전하지 못한 것은 내보내지 말라고 당부하셨지만 예쁘잖아요.”

아무리 훌륭한 도자기라도 상처가 생기면 그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누구도 그 상처 난 것을 돈을 주고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주 싼 값에 팔리거나 아니면 쓰레기통에 버려질 것입니다. 그것은 본래의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범죄 함으로 상처투성이가 되었듯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본래의 가치를 잃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큰 약점을 지니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질병이었습니다. 행 22:19, 20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세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공립학교 남녀 혼용 “화장실과 라커룸 지침” 으로부터 차세대를 제대로 지켜주는 플로리다주 주지사의 행정 정책들!

플로리다 주지사인 공화당 소속 Ron DeSantis는 다음과 같이 십대 미성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요청한 다수의 주법 집행을 거듭 거부한 Andrew Warren 주 검사에게 정적 처분을 내렸습니다.

1. 어린이들이 잘못된 정보로 자신들이 태어난 성별을 다른 성별로 바꾸는 성전환 수술 금지

2. 어린아이들이 Planned Parenthood 같은 낙태 대기업의 정보만 믿고 무분별한 낙태를 선택하여 육체적, 정신적 트라우마에 빠지는 것으로부터

3. 현 바이든 대통령과 그 행정부가 아이들을 대상으로 내놓은 비도덕적이고 육적, 정신적 건강을 해치는 (여러 의료/심리학 자료에 근거) 친동성애/친트랜스젠더 정책들로부터 어린아이들을 보호하는 다수의 주법 집행을 요청했으나 앤드류 워렌 검사로부터 거듭 거부당함

Andrew Warren(앤드류 워렌) 검사는 바이든 대통령과 그 행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친동성애/친성전환 트랜스젠더 정책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히 펼치는 민주당 소속 검사이며 “WOKE 검사”라는 소문이 있을 만큼 성경적 가치관과는 거리가 먼 인물입니다.

Ron DeSantis는 다음과 같이 정적 처분에 대해 짧게 설명했습니다. “워렌이 2021년 6월 다른 선출직 검사들과 성 정체성(Gender Identity)에 따른 아동 성전환 치료(남자 또는 여자가 아닌 다른 성별이 되기 위해 받는 극히 위험한 호르몬 치료와 수술)와 남녀 구별없이 같은 화장실과 라커룸을 혼용 사용하는 것을 지지하는 ‘공동성명’에 서명하였다. 어린이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공동성명서에 서명한 그는 플로리다주 검사로서의 주정부 직무에 대한 능력 미달과 고의적



반항심을 드러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앤드류 워렌 검사는 플로리다에서 낙태에 대한 “15주가 지난 태아에 대한 낙태 금지”를 “시행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며 “위의 법을 위헌”이라고 격하게 비난한 바가 확인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차세대를 향한 끊임없는 공격에는 맞서는 플로리다주 주지사!!

1. 플로리다 교육부는 지난 7월, K-12 공립학교들에게 서신을 보냈는데, 그 내용은 바이든 행정부 소속 교육부의 학교내 남녀 화장실과 라커룸 혼용에 대한 새로운 권고 규칙이 학생들에게 의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위험을 줄 수 있기에, 따르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서한을 보낸 이유는 바이든 대통령과 그 행정부 교육부가 버락 후세인 오바마 때처럼, 미연방정부의 요청을 거부할 경우 주정부와 공립학교들이 받는 재정을 보충하겠다고 협박하는 내용을 보내왔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그런 지침은 플로리다주 교육 지침과 어긋나는 요청이었다는 것이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교육부가 미전역 교육부에 보낸 새 지침서의 Summary:

성전환자가 되기를 원하는

개개인 학생들이 선호하는 화장실과 라커룸을 학교가 제공하지 않을 시에 미연방 정부가 마땅히 줘야 하는 지원금을 보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매우 잘못된 협박입니다. 그들이 주고 있는 지원금은 대통령 것도, 행정부 것도 아닌, 바로 시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2. 차세대를 향해 정반대되는 바이든 소속 보건부와 플로리다주 보건부:

지난 4월, 바이든 정부의 보건부(HHS)가 내놓은 새로운 규정은 더 심각하게 어린 아이들을 겨냥했습니다. 비정상적인 성정체성/젠더를 확실하게 아이들에게 세뇌시키는 “젠더 확인 케어(gender affirming care)”를 승인한 것입니다. 이 승인은 “아동 및 청소년의 젠더 불안(gender dysphoria)증이라는 명목 아래, 정상적인 초등 아이들부터 고등학생들까지 정부가 Push하는 젠더 정체성 사상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동학대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비해, 플로리다주의 보건부(HHS)는 반대하는 건강하고 성경적인 정책과 지침들을 내놓았습니다.

한예로, DeSantis주지사는 이전에, 미성숙한 연령의 아이들에게 성전환 수술을 하는 의사들을 고소할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린이들의 심리를 정체성 혼돈으로 이끌어가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들은 결국 아이들을 진짜 정신병과 트라우마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DeSantis 주지사는 말하길, “그들은 이 어린이들이 ‘젠더 확인 케어’를 받는 것에 대해서만 말하지, 정작 그것이 어떤 케어인지 어떻게 할 케어인지 그 내용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그들은 실제로 매우 어린 소녀들에게 이중 유방절제술을 하고 있으며, 어린 소녀들에게 거세 수술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이런 사람들의 상담과 케어라는 것이 어떤 것이 될지, 이미 그들은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기에 허용할 수 없는 것이다. 어린이들에게 이들이 행하는 케어는 정말 잘못된 케어(care)이다.”

참고로, 플로리다 주지사는 플로리다주 헌법 제4조 7항에 따라 직무 태만 혹은, 또 다른 이유에 근거하여 주 공무원을 정직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DeSantis 주지사는 사실 엄청난 용기를 내어 플로리다주의 차세대를 위협으로부터 지키고 있습니다. 그도 트럼프 전대통령처럼 극좌파로부터 생명의 위협, 가족에 대한 위협을 받고 있으나, 그는 절대로 뒤로 물러설 의향을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플로리다주 주지사가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용기를 잃지 않도록 응원해주시고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셀비치사랑교회 / (310) 749-0577
TLspc0316@gmail.com

Q: 저는 아직 청년의 나이에 과거 8.15 광복에 대해 잘 모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렌지 kim

A: 좋은 질문입니다. 젊은 세대는 8.15나 6.25를 경험하지 못했으므로 역사를 아는 것이 바른 국가관을 가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 2차 대전(1839-1945)의 최대의 선물은 한국의 8.15 해방입니다.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이 4대 자유(표현, 종교, 결핍, 공포)의 자유등을 공포했습니다. (1941년 1월 6일) 그 해 8월 8일 (미국은 7일) 일본은 미국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바쁜 주일에 진주만을 공격했습니다. 바로 같은 그해 히틀러는 민족 침략 작전(policyog gromicide)에 의해 450만 내지 6000만명의 유대인들을 가스실에 넣어 숨지게 했습니다. 1942년 12월 2일에 시카고 대학의 물리학자 아더 컴 프론, 엔리코 터미, 그리고 몇몇 사람에 의해 최초의 핵연쇄 반응(first nuclear chain reaction)이 성공했습니다. 1945년 2월 3일에 11월 까지 루즈벨트, 처칠, 스탈린은 소련이 일본에 항전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그해 4월 12일에 루즈벨트 대통령은 63세의 일기로 8.15해방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36년만에 자유의 종소리를 듣게 되었고 말과 이름과 주권을 되찾았음”

유대인 600만명을 죽인 지 4년만인 1945년 4월 30일에 히틀러는 베를린의 무너진 관저에서 자살했고 시체는 불탔습니다. 구라파의 모든 동맹국은 무너졌고 미국에서 대일 방송은 천황의 항복을 중용했습니다. 뉴멕시코 로스 알라모스에서 생산하고 알라모골도에서 실험에 성공한 원자탄이 (7월 16일) B-29에 실려 태평양을 건너가 일본 상공에서 순식간에 수십만명을 잿더미로 만들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1945년 8월 6일 광도(히로시마)에 8월 9일 장기(나가사키)에 인류역사상 최악의 불신판이 내려졌습니다. 이 때에 일본 천황은 고급 관리를 데리고 담뱃대에 색안경을 낀 젊은 군인 맥아더 앞에 걸어나와 무조건 항복했습니다. 이로서 주국은 36년만에 자유의 종소리를 듣게 되었고 말과 이름과 주권을 되찾았습니다.

아시아에서 한국의 위치는 반공사상과 기독교 신앙에서 최강국이 추리의 전후의 폐허에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가장 빨리 회복한 나라입니다. 진정한 8.15 경축은 막걸리를 마시고 또 하나의 범죄를 조성하는 것보다, 개인적인 깊은 자성과 하나님을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영원히 가정과 교회에 넘쳐야 될 줄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p>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p>						<p>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신국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성경강좌: 오후 8:00 금요찬양: 오후 9:00 세례기도회: 오전 9:45</p>	<p>뉴욕부르크루터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45 금요기도회: 오후 8:45 세례기도회: 오전 9:30 성경공부: 오전 10:00 화,토</p>	
<p>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예배: 오전 10:30 영양예배: 오전 10:45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세례기도회: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p>	<p>뉴욕양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준성 주일예배: 오후 2시 수요예배: 오후 8시</p>	<p>뉴욕센트럴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회: 오전 5:30 (월-토)</p>	<p>뉴욕주산양교회 담임목사: 김희복 주일예배: 오후 1:30 다문화예배: 오후 4:00 세례기도회: 오전 6:0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예배: 구역모임</p>	<p>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세례기도회: 오전 5:40 (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1,3,5주)</p>	<p>베이사이드 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종식 강연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주일저녁예배: 오후 6:00 수요저녁예배: 오후 6:00 새벽기도회: 오전 5:45 새벽예배: 오전 5:45 전인민복합대학예배: 매주목요일 오전 5:30</p>			
<p>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오전 7:30분 주일 2부 오후 1:45분 주일 3부 오후 1:50분 찬양예배: 오후 2:10분 세례기도회: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p>	<p>사랑의동산교회 담임목사: 강신용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 오후 1:00 주일대중: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30 세례예배: 오전 5:20</p>	<p>새벽별주님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 일 예 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전 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세례기도회: 오전 6:00 (월-토)</p>	<p>은누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문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 세례기도회: (월-토)오전6:00</p>	<p>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2: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회: 오전 6:00</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p>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p>						<p>밴쿠버빌라델리아교회 담임목사: 김성훈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강좌: 오후 7:00 세례기도회: 오전 6:00 (월-금), 오전 8:30 (토) 금요찬양기도회: 매일 갖게, 셋째, 다섯째 금요일 오후 7:30 금요찬양기도회: 특별함(월) 오후 7:30</p>	<p>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봉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보야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례예배: 오전 5:45</p>	<p>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하경남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회: 오전 5:40</p>
<p>아르헨티나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연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p>	<p>칠레 한인연합교회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4찬양기도회: 아침 7:40 유, 초, 중, 고등부예배: 오전 9:30 (주일)</p>	<p>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유문권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찬양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7:30 세례예배: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p>	<p>하와이 행복안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성경강좌: 오후 7:00 세례기도회: 오전 5:30(화-토)</p>	<p>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9:00</p>	<p>멕시코 현지인 교회 선교사: 임한곤 선교사 1. 멕시코 반석 신학교 교수 2. 임마누엘 신학교 교수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후 3:00 주일3부예배: 오후 5:00</p>			

사/모/단/상



송정임 사모 (버지니아 St. John's UMC)

NO turning back; 뒤돌아서지 않겠네

지난주, 사촌언니 딸의 결혼 식으로 한국에서 가족들이 왔다. 결혼식 장소가 내가 사는 노던 버지니아 근처 한 시간 떨어진

역사적이고 아름다운 유명한 웨딩홀이어서 가족들에게는 DC 근처 호텔에 머물며 관광도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

어린 시절 명절마다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여름에도 함께 꼭 휴가를 같이했던 사촌들은 오랜만에 만났지만 바로 어제 헤어지고 만난 듯 너무 반가웠고, 밀린 얘기들로 우리는 시간이 가는 줄 몰랐다. 각자 결혼하여 자녀들을 낳고 키우는 얘기들을 하며 사촌언니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어느 한 가정, 누구도 나는 아무 어려움도 고난도 없이 너무 평안하고 행복하리만 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다. 시간의 흐름만큼 우리는 각각 삶의 무게와 어려움에 늘 고비가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가족들 기도의 힘으로 지금까지 이겨내며 살고 있고 이렇게 미국에서 다시 만났다면 기뻐하고 감사했다.

어느덧 열흘의 시간이 다 가고 가족들도 한국으로 미국 각 주로, 모두 삶의 자리로 돌아가고 우리 가족도 일상으로 돌아왔다. 팬데믹으로 긴 시간 가족들을 만나지 못했던 나와 아이들에게 이번에 함께 한 시간은 한여름밤의 꿈처럼 행복하고 아쉽기만 했다. 월요일 운전을 하며 출근을 하는데 여러 감정들이 뒤섞여 갑자기 왈칵 눈물이 났다. 모두 돌아갈 곳이 있는데 어쩐지 나만 미국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외롭고 쓸쓸한 마음이 들었다. 오랫동안 뱉지 못한 점점 연로해지는 부모님들, 형제, 자매들, 친구들이 모두 그리웠다. 그렇게 여러 상념에 잠겨 하이웨이를 달리는데 라디오에서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찬양이 나왔다. 우리가 익숙히 알고 부르던 한국어 찬양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와 같은 곡이다.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가볍고 부드러운 어쿠스틱 기타 반주와 함께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차에 잔잔하게 울려 퍼지는 찬양은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같았다. 그리고 내

입에서 고백처럼 찬양을 함께 따라 부르며 점차 나의 마음도 평안해졌다. 후회 없는 인생이란 없다. 모두 각자의 삶 속에 자기만의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 안에는 다양한 후회와 아쉬움과 아픔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그 순간에 머물러 뒤돌아보고 멈춰 있지 않는 것은 분명히 모든 순간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오늘도 맡겨진 하루의 할 일들을 채우며 앞을 향해 나아간다. 특별하고 화려하지 않아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과 함께 가는 뒤돌아서지 않는 삶이기 때문이라. songjeongim@gmail.com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시진핑 3연임 앞서 알고리즘까지 장악

중국 정부가 포털 사이트와 SNS 등에 노출되는 콘텐츠를 결정하는 민간 기업의 핵심 알고리즘을 손에 넣었다. 그동안 중국의 인터넷 통제가 공산당과 정부에 불리한 콘텐츠를 걸음, 삭제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당국이 원하는 대로 여론을 몰고 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을 확정할 올가을 당대회를 앞두고 중국 정부가 인터넷 공간을 완전히 장악한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관공실(CAC)은 지난 12일 홈페이지에 '인터넷 정보 서비스 알고리즘 추천 관리 규정'에 따라 중국 내 업체의 알고리즘 명칭과 등록 번호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 3월 이 규정을 만들어 주요 정보기술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핵심 알고리즘을 당국에 제출하도록 했다.

CAC가 공개한 30개 목록을 보면 중국판 카카오톡으로 불리는 텐센트의 위챗과 최대 포털 사이트 바이두, SNS 웨이보, 모바일 쇼핑 플랫폼 T몰, 배달 애플리케이션 메이탄 등이 포함됐다. 14억 중국인은 물론이고 중국에 거주하거나 잠시 머무는 외국인들도 일상적으로 쓰는 서비스다. 바이두와 웨이보는 실시간 검색어와 핫이슈를 선정하고 사용자의 검색 이력을 통해 관심 콘텐츠를 추천하는 알고리즘을 당국에 등록했다. 티몰은 사용자의 클릭 패턴과 추가 구매, 판매량 등의 데이터를 활용해 품목을 정렬하는 방식을 공개했다. 메이탄은 특정 주문에 대한 예상 배송 시간을 계산해 배달 기사를 연결해주는 알고리즘을 제출했다. 정보기술 기업의 영업 기밀이라고 할 만한 핵심 서비스 작동 방식이 중국 당국 손에 고스란히 들어간 것이다.

중국 당국은 최근 각 인터넷 회사에 '부정적 콘텐츠'를 제거하고 '긍정적 콘텐츠'를 이용자들에게 노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당국이 주요 인터넷 사업자들의 알고리즘 작동 방식까지 완벽하게 장악하게 되면 '긍정적 콘텐츠' 위주로 인터넷 공간을 '정화'하려는 중국 당국에 한층 힘이 실릴 전망이다. 시 주석 집권 이후 중국에선 인터넷 여론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강화됐다. 중국 정부는 인터넷 공간을 정화한다는 이유로 올해 상반기에 만 1만2000여개 사이트를 폐쇄했다. 경로나 별금을 받은 사이트도 3000곳이 넘는다. 중국 매체는 이들 업체가 가져 뉴스나 음란, 도박 관련 콘텐츠를 퍼뜨려 부당 이익을 얻는 등 관련 법규를 어겼다고 전했지만 여론 통제의 일환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이와 함께 국가·정권 전복과 관련되거나 통일·주권·영토·안보를 저해하는 내용의 방송을 금지하는 인터넷 방송 진행자 행동 규범도 시행되고 있다. 중국 정부가 민감하게 여기는 대만과 홍콩, 인권 등에 관한 이견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당국이 강력한 단속 의지를 보이자 주요 업체들은 스스로 건전한 사이버 공간을 만들겠다고 오탈타 단속에 나서는 일도 벌어졌다.

중국 당국의 인터넷 통제는 코로나 봉쇄로 인한 불만 여론이 급증하면서 한층 강화됐다. 곧 있을 시 주석의 3연임 확정과 이후 국정 운영에 관한 비판을 원천 차단하려는 의도도 있다는 평가다.

최악 가뭄 유럽, 경제 직격탄

유럽 대륙을 꿰뚫는 교통의 동맥 라인강을 비롯한 주요 강이 바짝 마말라가고 있다. 기록적인 폭염과 적은 강수량으로 유럽 주요 경제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영국 가디언은 13일(현지시간) 라인강을 비롯한 유럽의 주요 강들이 말라 운송은 물론 경제, 전 분야에 적잖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독일연방수문학연구소(BfG)는 전날 기준 주요 수위 측정 지점인 독일 카우프의 수위가 40cm라고 밝혔다. 그러나 며칠 뒤면 수위가 30cm 미만으로 더 낮아질 것으로 보여 운송회사들의 비상이 걸렸다. 수위 40cm는 바지선을 운항하기 위한 사실상 최소한의 수위이기 때문이다.

라인강 바지선 물동량은 현재 크게 줄었으며, 요즘 또한 5배가량 급증했다. 라인강을 통한 바지선 운송이 중단될 경우 육로를 이용해야 해 독일은 물론 유럽 경제 전반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이 지난 2018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강을 통한 운송이 6개월간 중단되면 50억 유로(6조7000억원)가량 손실이 날 것으로 예상했다. 500년 만에 유럽에 찾아온 가뭄으로 라인강 뿐 아니라 유럽 곳곳의 강은 말라붙고 있다. 이탈리아를 흐르는 포강은 유수량이 평소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수위는 2m가량 줄어 옥수수과 쌀 등 농업 생산량이 타격을 받고 있다.

프랑스의 가장 긴 루아르강도 비슷한 상황이다. 프랑스 당국은 루아르강 보호를 위해 원자력발전소 냉각수 배출 시 강물의 수온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가뭄으로 강 수위가 낮아져 온도가 오르면 냉각수 배출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냉각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선 전력생산을 감축해야 한다.

안드레아 토레티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연합연구센터 연구원은 "지난 500년간 2018년 가뭄만한 경우는 없었는데, 올해의 경우 상황이 더 심각한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어 "향후 3개월간 건조한 상태가 지속될 위험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효과적으로 피해를 완화할 대책이 없으면 유럽 전역에서 가뭄이 더 심하게 자주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자리 많고 수요 폭발에도 생산·투자 '뚝'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불황 공포가 커지고 있지만 미국과 서방, 한·일 등 선진국들의 일자리는 여전히 남아돌 지경이다. 구하는 기업이 사정을 해도 취직하겠다는 사람이 없는 '총체적' 구인난 상태다. 새 자동차를 사려면 최소 6개월을 기다려야 하는데도 구매하겠다는 사람들이 넘쳐난다. 생필품을 비롯해 사치품, 명품까지 출시되는 족족 품이 난다.



이처럼 수요가 폭발하는데도 기업들은 공장을 가동할 수 없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원자재·부품·공급망 부족 사태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등한 석유 가격, 곡물 부족 현상까지 동시다발로 터졌기 때문이다. 공장을 더 돌려 상

품을 만들어야 하는데 원료도 부품도 원자재도 없다. 거기다 노동력마저 부족한 상황인 것이다.

전통적인 경제학의 잣대로 보면 수요 과잉과 공급 부족은 전형적인 호황의 사인(sign)이다. 공급이 수요를 감당할 수 없게 되면 일시적으로 인플레이션은 발생하겠지만 기업들의 더 많은 투자가 일어나고, 더 많은 투자는 더 많은 일자리와 더 높은 실질임금을 창출한다. 생산기업의 주머니가 불어나면 주식가격도 오른다. 금융이 활성화될 뿐 아니라 국가는 더 많은 세금을 걷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나선다. 모든 게 선순환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세계 경제는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데도 호황과 전혀 반대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경제주체들은 전대미문의 공황이 닥쳐올 것인 공포에 휩싸여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형태의 불황이 야수처럼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내기 시작했다"고 진단하고 있다. 기존의 경제질서, 전형적인 진행 형태를 답습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불황이 코앞까지 다가왔다는 뜻이다.

미국 노스다코타주립대 데이비드 폴린 교수(경제학)는 12일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경제는 지금 완전히 카오스에 빠진 상태"라고 단언했다. 폴린 교수는 "수요와 공급으로 보면 지금 경제는 불황처럼 보이지 않고 심지어 특정 국가, 특정 지역은 엄청난 이익을 챙기고 있다"면서 "그러나 기업 입장에서는 노동자를 구할 수도 없고, 제품을 생산할 원료와 부품도 없으며, 앞으로 이런 상황이 개선될 것 이란 희망도 없다"고 지적했다.

폴린 교수뿐 아니라 다른 경제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우려하는 대목은 바로 투자다. 호황의 최종 지표는 기업이 얼마나 많은 잉여이익을 생산설비와 공장을 짓는 데 투자하느냐다. 기업이 투자해야 더 많은 일자리, 더 높은 실질임금, 더 많은 세금, 더 건전한 국가 재정이 완성될 수 있어서다. 그런데 전 세계 투자를 선도하는 선진국 글로벌 기업들은 투자를 늘리기는커녕 되레 투자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동결하거나 더 줄이고 있다.

지난 2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세계 최대 대형할인매장 월마트의 대규모 직원해고와 매장 축소 결정을 보도하면서 "엄청난 물가 상승에도 월마트의 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훨씬 줄어들었고, 앞으로도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회사 경영진의 판단"이라며 "경기에 가장 민감한 월마트의 투자 축소는 이미 미국의 일반 소비자들까지 지갑을 닫아야 한다고 느끼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분석했다.

NYT는 이런 상황을 '지정학적 공황'으로 규정했다. 경제단위가 점점 더 '세계화'되면서 이제는 모든 원료와 광물, 농산물, 반도체 등 첨단 전자부품 등이 국제적인 공급망 없인 수급 자체가 불가능한 연쇄구조가 생겨났고, 이 연결망 어느 하나에 문제가 생기면 세계 경제 전체가 신음하게 됐다는 것이다.

신문은 "코로나19 팬데믹과 지난 2월 터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모든 형태의 국제 공급망이 크게 흔들리게 됐다"면서 "기업들은 이 공급망이 정상화되기 전까지 결코 투자를 늘리지 않을 태세"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지정학과 국제관계는 경제를 설명하는 데 그저 참고적인 변수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가장 결정적인 변수로 바뀌었다"고 평했다.

지정학이 지금의 세계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미·중 갈등 등이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이 아무리 무리한 대외·대내 정책수단을 쓴다 해도 경제교역 관계를 건드리진 않았다. 위구르족을 탄압해도 미국 기업은 중국 내 하청업체에서 상품을 생산했으며 중국산 광물과 부품을 가져다 썼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대중 경제제재 모습을 보이더니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는 중국의 대미 교역뿐 아니라 대서방 교역까지 세세하게 규제하기 시작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배제한 새로운 국제 공급망 질

서를 구축하겠다는 의의까지 내비친다. 한·미·대만·일본이 연합하는 반도체 동맹(칩4)이 대표적이다. 서방 입장에서 중국은 이미 '세계의 공장'이란 명성을 접고 최고의 투자처에서 최악의 투자처로 바뀌기 시작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역시 엄청난 자원부국 러시아와 농업대국 우크라이나의 역할을 세계 경제에서 지우게 만든 사건이다. 러시아 때문에 석유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랐고, 우크라이나 때문에 생필품인 식량가격마저 급등했기 때문이다.

NYT는 미국 조지워싱턴대 타라 싱클레어 교수(경제학)의 말을 인용해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 미국과 서방은 '진짜배기' 호황을 이뤄본 적이 없다"면서 "2010년 이후 기업이 순이익을 필요충분하게 투자하는 선순환이 일어나지 않았고 그 악순환이 올해 한꺼번에 터지는 듯하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 경제전문 싱크탱크 '경제혁신그룹'의 애덤 오지백 수석이코노미스트의 말도 인용해 "아직 미국·서방·극동 선진국 중심의 새 공급망 체계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들이 쉽게 투자에 나설 리 만무하다"면서 "아마도 기업 입장에서 이 판단은 앞으로 몇 년간 더 현명한 것 일지 모른다"고 전하기도 했다.

매일 수백명 탈출, 러군은 무차별 공격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남부 자포리자주에서 매일 잔혹한 전쟁범죄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쟁 초기 이 지역을 점령한 러시아군은 다른 지역으로 떠나려는 주민들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하는가 하면 민간인 거주지역에 포탄과 공중폭격 세례를 퍼붓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14일(현지시간) 자포리자 원전 노동자 대표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향해 무차별 포격을 가한 러시아군에 의해 살해됐다고 보도했다. 러시아군은 당초 수천명의 주민이 러시아군의 학살을 피해 우크라이나 정부 통치 지역으로 이동하려던 피난민 행렬을 향해 포격을 가했지만 목표 지점을 잘못 계산하는 바람에 피난에 나선 주민들의 차량 행렬 바로 옆 아파트에 포탄이 떨어지기로 알려졌다. 자포리자주 사정은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정부는 물론 서방 언론에도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러시아군은 3월초 최대 원전이 있는 이 지역을 전략 거점으로 선정해 점령한 뒤 엄격한 통행 제한을 실시해왔다.

러시아는 기존 주정부 주요 인사들이 탈출하자 이 지역 친러 인사를 내세워 꼭두각시 정부를 세운 뒤 주민들에게 강제로 러시아 국적을 부여하는가 하면 러시아와의 합병을 위한 강제 주민투표를 실시하려 했다.

이처럼 학살이 이어지자 인근 우크라이나 통치 지역으로 탈출하려는 주민들이 계속 늘어났고, 골머리를 앓던 러시아군은 이들을 무차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다. 간신히 탈출한 한 주민은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매일 수많은 주민이 러시아군 총기와 포탄에 희생되고 있다"고 증언했다.

러시아군의 피난민 공격과 민간인 거주구역 포격은 인근 헤르손주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수세로 몰아넣으면서 더욱 심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국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등 서방 42개국은 자포리자 원전의 즉각적인 반납을 골자로 하는 대 러시아 규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서방국들은 성명에서 러시아를 향해 "즉각 원전 단지와 그 주변에서 군 병력과 미승인 인력을 철수해야 한다"며 "합법적인 원전 운영자들이 외부 위협 없이 원전을 안전하게 지키는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교 한국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152. 한명교 (1873-1964)

한명교는 1873년 1월 12일이나 다음 달 12일에 한국 충남(?) 예산에서 태어나 연동에서 거주하였는데 서울 종로에 있는 연동일 것 같다. 그는 32세가 되던 1905년 4월 13일에 하와이 농장 노동자로서 고틱 킨에 이주하여 일본 고베를 떠났다. 그런데 그가 하와이 호놀룰루에 그달 24일에 도착했다고도 하고, 다음 달 8일에 도착했다고도 한다. 호놀룰루에 도착하긴 했으나 건강 검진으로 호놀룰루에 내리기는 다음 달 8일이 아닌 9일이다. 그는 영어 이름 표기는 Han Myung Kio와 Han Myung Kyo로 사용되었으나 Han Myung Kyo가 옳은 표기다. 하와이에 온 지 5년이 되던 1910년에 그는 하와이섬 호놀가이지에서 박근섭과 오방병 등과 함께 거주하면서 노동했다. 당시 호놀가이지 한인감리교회 교역자는 최진태였고, 학습교인 26명에 세례 교인이 12명이었다. 이들 학습교인과 세례교인 명단에 그가 포함되었을 것이 분명하다.

한명교가 미국 북감리교 캘리포니아 연회 산하 하와이 선교부의 전도사가 되기는 하와이에 온 지 약 10년이 되던 1914년이었다. 그는 하와이섬의 파팔노아 한인감리교회에 김창성의 후임자로 파송되었고, 오오가라 한인감리교회에도 파송되었는데 이 교회는 새로 문을 연 기도처였다.

정년회에 13명이 가입하여 활동하여 교회 사역에 큰 기쁨으로 역할하였을 것이다.

위의 힐로 한인감리교회와 하갈나우 한인감리교회를 2년간 섬기던 한명교는 김이제에게 바톤을 넘기고, 1917년에 오아후섬에 있던 한인소년학교 교사로 파송받았다. 1년 전에 75명이 등록하였는데 1917년에도 그 정도 등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1년 전 등록금이 60달러였으므로 1917년에도 그 정도로 생각된다.

1918년에 한명교는 파송을 받지 못했다. 그는 하와이 농업 회사에 소속되어 하와이섬의 파하라 농장에서 노동하는 가운데 파하라 한인감리교회에 출석했다. 그해 2월에 하와이 감리교 연회가 파송한 파하라 한인감리교회 담임교역자는 서울 정동감리교회가 파송한 박기흥이었고 전도사는 조석C였으며, 23명의 학습교인과 한명교 등 10여 명의 세례교인이 있었다. 그해 10월에 한명교는 세계 제1차대전 징집서류를 제출했다. 본 징집서류에서 그가 키가 컸고 체구가 컸으며 갈색 눈에 머리

카락이 검었음을 확인하게 된다. 한명교가 세계 제1차 대전에 종군하게 되어서 인지는 몰라도 1919년에도 어떤 교회에도 파송을 받지 못한 것 같으나 집사 목사 2년차 과정에 있었다. 그런데 그해 2월 21일에 2년 10개월이 된 사랑하는 어린 딸 연숙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안타까운 사연을 맞아 이일로 상당히 상심하였지만 어려운 기간을 잘 견뎠다.

1920년에 한명교는 그가 노동하며 거주하던 하와이섬의 파하라에 있는 한인감리교회로 파송을 받았다. 작년에 이곳에서 사역하던 박중수의 뒤를 이었는데 그는 하와이섬의 파팔노아 한인감리교회로 파송되었다. 그해 한명교는 아내 이은성과의 사이에서 두 살 6개월 된 아들 흥완과 9개월 된 딸 인숙을 두었다. 그해 인구조사에 나온 파하라에 거주한 16명의 독신 한인과 57가정의 한인인 대부분 그가 목회하던 한인교회 교인일 것이다. 16명의 독신 한인인은 송점다 (45세), 정완식(38세), 고영식(46세), 신이영 (36세), 김영신 (45세), 백선민 (40세), 송성과 (44세), 송인식 (51세), 원도칠 (44세), 엄철사 (59세), 김영화 (36세), 김희준 (45세), 정원선 (53세), 신인식 (48세), 이소원 (33세), 박 준 (54세)이었다. 그리고 한인 가정은 공기선(56세)과 아들 최학선 (39세), 최C.K.(38세)와 부인 이 인(26세)과 아들 가황 (1년 4개월), 현매리 (67세)와 아들 공준 (42세)과 손자 손복

감독의 보고에 따르면 한명교는 파하라 한인감리교회 교인을 신실하게 섬긴 목사로서 한인 노동자들이 높이 존경했고, 한인 노동자가 속해 있는 농장 감독에게 한결같은 친구였다. 한 해 동안 성인 3명이 세례를 받았고, 유아 세례를 받은 유아가 4명이었고, 학습교인이 된 자가 1명이었다. 그해 지출은 200달러였고, 현금액은 80달러였으니 적자였다. 지난해 주일학교와 영및 청년회와 교회 재산에 대한 보고는 없었다. 1922년에는 한명교가 파하라 한인감리교회와 나하레후 한인감리교회를 맡았다. 가우 농장에서 노동하던 한인들이 나하레후 농장으로 이동하여 가우 교회는 문을 닫았고, 그 대신에 나하레후 교회가 새로 문을 연 것으로 보인다. 파하라 교회에서 한 해 동안 2명이 학습교육을 받아 학습교인이 되었다.

1923년에도 작년과 같은 장소에서 연회가 있었는데 2월 28일부터 3월 4일까지 계속되었다. 지난 한 해 동안 그는 D.H. 크라인펠터와 T. 코무로와 함께 하와이 선교부 산하 '해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위의 연회에서 그가 소속된 위원회는 37가지를 보고했다. 하와이 지역 거주 감독인 A.W. 레오나드 목사에게 정성을 다하여 '알로하'의 인사를 표했고, 지난 한 해 동안 하와이 선교부의 사역과 특별히 연회에 대하여 풍성하게 광고한 신문사에 진정 감사사를 표하였으며, 연회에 참석한 여러분에게 매우 호의적으로 오찬을 제



복가이지 지사를 담당하고 있었다. 그의 지사에는 호놀룰루 팔라마 지사에 신국경이, 가와이 지사에 현 순이, 힐로 지사에 이관목이, 와히아와 지사에 안창호가, 와일루아 지사에 이동빈이, 와히파후 지사에 강의주가, 마위 지사에 임준호가 맡았다. 이들은 대부분이 목사나 전도사였다.

이듬해인 1930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한명교는 하와이섬의 호놀가이지에서 자영업에 종사했고, 세탁소를 운영하면서 호놀가이지 교회에 시간제 교역자로 파송을 받았다. 그해 한명교는 아내 이은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세 아들이 존, 조섬, 사무엘과 두 딸인 매리와 도라를 두었다. 1931년 2월 연회 보고서는 이관목 목사가 담임하였고, 22명의 학습교인과 15명의 세례교인이 있었다. 1931년과 1932년에도 그는 호놀가이지 교회에 시간제 교역자로 파송을 받았다. 그런데 1933년부터 그가 파송을 받지 못했다.

1940년에 개최한 하와이 선교부 연회에는 한명교가 박창식과 함께 집사 목사로 기재되었던 것으로 보아 그 때까지도 시간제 교역자로 활동한 것으로 보

1914년 하와이섬의 파팔노아 한인감리교회 파송, 오오가라 한인감리교회 파송 새로 문을 연 기도처 1924년 파하라 지역에 임시 설교 목사로 파송 1925년 호놀가이지 한인감리교회에 임시목사로 파송 1929년 한인교회보 호놀가이지 지사를 담당 1964년 2월 21일에 향년 91세로 하나님의 부름심 받음

공한 제일 감리교회 목사 M.H. 알렉산더 박사와 여성교회 회원에 감사사를 드렸다. 그해 그는 하와이섬의 파하라 한인감리교회만 맡았던 것으로 보아 나하레후 농장에서 노동하던 한인 노동자들이 모두 다른 농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한명교는 1924년에도 파하라 지역에 임시 설교 목사로 파송을 받았다가 1925년에는 하와이섬의 호놀가이지 한인감리교회에 임시목사로 파송을 받았다. 1년간 그는 유아 2명에게 유아세례를 주었고, 성인 14명에게 세례를 주었다. 1926년과 1927년에는 그가 임시 목사 명단에 있었다. 1928년에 하와이섬의 호놀가이지 한인감리교회에 임시 목사로 파송을 받았고, 1929년에도 위의 교회에 파송을 받았으나 본 교회에 대한 통제는 해제되지 않았다.

1914년에 출간한 한인교회보가 1929년에는 총 30쪽으로 표지 1쪽, 한국어판 16쪽, 영어판 12쪽, 영문판 1쪽으로 구성되어 호놀룰루에서 발행되었는데 흥완식이 한국어판 편집인이었던 1929년에 한명교가 한인교회보 호

인이다. 그런데 1943년 9월에 감리사 프라이 박사의 사회로 호향 한인감리교회 계삭회가 호향 한인감리교회에서 16명이 모인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 계삭회에서 한명교는 임준호, 박지흥, 박중수와 함께 후직 목사로 보고되었다.

1950년대에 하와이에 있던 국어학교 일체가 해산되었을 때 한인사회 원로였던 한명교는 임준호, 정두욱, 이흥기, 이덕배, 함흥식, 이준근, 이명우 등의 한인사회 원로와 함께 학회를 조직하여 교회 내에 국어학교를 설치하는 청원을 했다. 하지만 제사와 같은 한국 전통문화 보존에 있어 위의 원로들과 이동진과 안창호 간에 논쟁이 일어나 한국 학교가 교회 내에 설치되지 못했다. 당시 한국 학교 논쟁은 심지어 힐로에서도 일어나 황인환, 이병운, 김봉서, 백만금 등이 이관목의 국어학교 교수 방식에 반대하여 교회 재판으로까지 발전하였다.

한명교는 1964년 2월 21일에 향년 91세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와이 호놀룰루에 있는 누아누 기념공원묘지에 안장되었다.

amien,sohn@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p>갈보라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p> <p>Tel: (702) 579-7576, Fax: (702) 257-9191 6552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p>	<p>다민족 교회 담임목사: 홍귀표 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 영예배: 오전 10: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다민족찬양: 매주(목) 오후 4:00-7:00</p> <p>Tel: (702) 821-1112, estross@yahoo.com 6030 W. Touhy Ave., Chicago, IL 60646</p>	<p>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영예배: 오전 10: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태양세례기도회: 오전 6:00</p> <p>Tel: (610) 222-0691, 267-471-7777, Fax: (610) 222-08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p>	<p>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인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어 예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p> <p>Tel: (215) 945-1512, Fax: (215) 945-2095 153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p>	<p>벨렐교회 담임목사: 백성중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1:45 다민족: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회: 오전 6:00(화-토)</p> <p>Tel: (410) 46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kton City, MD 21042</p>	<p>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영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5: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유치, 청년, 종교대학 (주일) 오전 11:00, (금) 오후 8:00</p> <p>Tel: (603) 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ingham, MA 01948</p>
<p>새생명한인교회 담임목사: 정성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전 11:00 E M 예배: 오후 7:00(목) 새벽 예배: 오전 6:00(화/목/토) 구역 예배: 각 구역별로 한국 학교: 오전 10:20(주일)</p> <p>Tel: (850) 423-9700, Cell: (213) 703-9961 5502 Old Bethel Rd., Crestview, FL 32536</p>	<p>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p> <p>Tel: (702) 749-9929, www.omchurch.org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p>	<p>일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 영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p> <p>Tel: (501) 820-9049, www.jea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p>	<p>앵커리지지역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p> <p>Tel: (907) 344-6446, Fax: (907) 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p>	<p>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은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세례기도회: 오전 6:00(화-토)</p> <p>Tel: (215) 542-0288, Fax: (215) 542-9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p>	<p>킬린은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한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찬양예배: 오후 3:00 세례예배: 오전 5:30(화·금)</p> <p>Tel: (254) 435-1842(H), (254) 501-4933(C) 1000 E. Velet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p>
<p>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세례예배: 오전 5:30(화-토)</p> <p>Tel: (703) 941-4447, www.mpco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p>	<p>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정호 주일 영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3부예배: 오후 1시 수요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화-토)</p> <p>Tel: (253) 536-6675, www.tacomakrc.org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말씀과 땅 (15) - 아내와 선지자

박성현 박사

(고든콘웰신학대학원 구약학교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창 20:3).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날 왕인 아비멜렉이 당시 아브라함에게서 사자를 데려가자(창 20:2) 하나님이 그에게 현몽하시고 이르신 말씀이다. 또 다시 아브라함이 사자에 대해 자기 누이라고 하여 초래된 사건이었다. 아브라함이 되어서도 아브람 때처럼 살고 있는 믿음의 조상이 한심하고, 거둬 이방 왕의 궁에 묶이는 사자가 참으로 안쓰러워지는 대목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애굽에서 처럼(창 12:17), 이 변에도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하셨다: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창 20:3).

고대 근동에는 남편이 있는 여자를 다른 남자가 데려갈 때 이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는 법적 전통이 있었던 것 같다. 앗수르(Assyria) 제국의 첫 수도였던 동명의 도시 앗수르(현재 Qal'at Sherqat)에서 발견된 증거 앗수르 법(MAL)에는 다음과

했다면 이에 대해 맹세하고 그 여자의 남편에게 금전적 보상을 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행동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바로 그의 경우,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창 12:18)는 질문이 곧 남편이 있는 여자인줄 몰랐다는 취지에 대한 맹세에 해당하고, 앞서 아브람을 후대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창 12:16)를 일게 한 것이 곧 보상에 해당된다. 그리고는 아브람과 그 일행을 보냈다(창 12:20).

이와 유사하게 아비멜렉 역시 아브라함에게 힐문한다: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생각은 못하고 애꿎은 아비멜렉을 탓하는 장면이다.

그래서 아비멜렉의 반문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창 20:4). 이와 유사한 질문을 우리는 이 전에 접한 바 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창 18:23). 바로 아브라함이 소들과 고모라를 두고 중보하며 하



중기 앗수르 법(MAL) 토판 A (독일 베를린 Vorderasiatisches Museum 소장; 공유 도메인).

능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이란 새 이름을 받기에 이르렀건만(창 17) 자신을 지킬 수단으로 “이복 누이”(창 20:12) 만능패(wild card)를 여전히 붙들고 있는 그에게서 우리는 아직도 아브라함 이전의 아브람을 발견한다. 애굽을 떠났지만 여전히 애굽을 동경하는 광야의 이스라엘을 본다. 비록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었으나 여전히 옛 사람을 벗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를 본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창 17:4) 믿음은 있었으나 정작 자신의 안면 때문에 사라의 남편으로서 나설 믿음은 없는 아브라함. 그런 아브라함을 대신해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신다: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창 20:3).

그러나 진정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 개입하심이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내리니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나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창 20:7).

혼인 언약으로 한 몸을 이룬 사라는 이복 누이가 아닌 “아내” 피의 언약으로 전능한 하나님의 백성된 아브라함은 “선지자”

같은 법 조항이 기록되어 있다: “다른 남자(그녀의 아버지도, 형제도, 아들도 아님)가 한 남자의 아내로 하여금 자신과 함께 떠나도록 주선한 경우: 그는 그녀가 한 남자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맹세해야 하며 남편에게 납으로 7,200세겔을 주어야 한다...”(MAL 토판 A, 22문단).

만약 남편이 있는 여자인 줄 알면서 성관계까지 가진 것이 의심된다면 보상금(납 7,200세겔)을 지불하게 한 후 그 남자를 강에서 시죄법으로 다스릴 것을 규정한다. 즉, 강물에 집어 던져 살아나면 무죄로 인정한다는 규정이다. 물론 이런 신명 재판에서 살아남는다면 그야말로 기적이 아닐 수 없었을 것이다.

비록 중기 앗수르 법이 족장 시대보다 후대에 기록된 법이긴 하나, 창세기 12장의 바로와 20장 그날 왕 아비멜렉은 둘 다 중기 앗수르 법이 말하는 원칙, 즉, 여자에게 남편이 있는 줄 몰

라 내가 함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내가 무슨 뜻 형제도, 아들도 아님)가 한 남자의 아내로 하여금 자신과 함께 떠나도록 주선한 경우: 그는 그녀가 한 남자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맹세해야 하며 남편에게 납으로 7,200세겔을 주어야 한다...”(MAL 토판 A, 22문단).

아비멜렉의 경우 사자를 돌려보낼 뿐 아니라, 심지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날 땅에 거주할 것을 제안하기까지 한다(창 20:14-16). 이렇게 볼 때 아비멜렉의 행실은 당시 법을 적용했을 때 아무 하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애굽을 떠나게 한 바로와 달리 그날 땅에 살라는 호의까지 베풀고 있기에 그의 행위는 그가 속한 전통의 틀에서 “의”롭다 간주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이런 아비멜렉 앞에서 아브라함의 변명은 무색해진다: “이 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창 20:11). 자신이 사자에 대해 불의를 저지르고 있다는

나눔께 드린 질문이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나이까”(창 18:25)라고 하나님과 변론하던 아브라함의 모습은 온데 간데 없고, 창세기 20장에서 우리는 아비멜렉의 자기변호에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까”(창 20:5).

하나님은 이런 아비멜렉의 주장이 옳다 말씀하신다: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창 20:6). 하나님도 아비멜렉이 범죄하지 않았고 그 마음이 온전하였다고 인정하신 것이다.

반면 아브라함에 관해서는 그의 처사를 아무리 관대히 봐주려 해도 방법이 없다. 이미 “전

한없이 초라해진 아브라함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는 당신의 선지자라 하신다. 그리고 그가 기도하면 들으시겠다 하신다. 그러면 너를 살려두리라 하신다. 성경에 선지자라는 말이 사용된 첫 사례이다.

이 말씀을 따라 사라는 회복되었고 선지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은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중을 치료하라”고 말씀하셨다(창 20:17).

사라. 혼인의 언약으로 한 몸을 이룬 그녀는 “아내”였다. 그를 더 이상 “이복 누이”라 해서 안된다.

그리고 그의 남편 아브라함. 피의 언약으로 “전능한 하나님”의 백성된 그는 “선지자”였다. 그리고 그날에서의 사건은 이부르심에 결코 그의 자격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의에 근거한 것임을 독자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다.

spark4@gordonconwell.edu

성 품 칼럼



이영숙 박사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하나님과 친밀하기

“엄마,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셔서 인간을 괴롭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본인이 전지전능하시다면 선악과를 만들면 인간이 따먹을 것을 분명히 하셨을 텐데, 왜 그런 것을 만들어서 인간을 복잡하게 하셨는지... 그리고 에덴동산을 만드신 후에 주시려던 다 주실 것이니 하필 선악과를 만들어서 이것만은 먹지 말라고 치사하게 하셨는지... 먹었다고 쫓아낼 것은 뭐람. 그것도 가족을 입혀서는 병 주고 약 주고 하시는 것 같아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사춘기 시절에 큰아들 희종이가 볼멘소리로 항의하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단지 아들에게 잘 설명해 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신 후에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지 깊이 묵상하다가 큰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악과는 바로 우리와 관계를 맺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작은 선악과 하나에 그렇게까지 큰 의미를 두었던 까닭은 친밀함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것을 다 사람에게 주시면서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사랑의 관계 형성을 위한 최소한의 경계선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주신 최소한의 이 경계가 바로 우리에게 권위를 주신 이유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 낸 전적인 이유는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첫째가 아니었다. 내가 너희를 이끌어 낸 첫 번째 이유는 너희를 내게로 데려오는 것이었다.”(출애굽기 19:3-6 참조)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부답스러워하면서, 송아지를 만들고 “보라,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라며 우상을 숭배합니다. 권위 앞에 순종하기보다는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자유라고 믿으며, 욕망으로 한껏 치장한 우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할 때 맛볼 수 있는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이 권위 앞에 순종하기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권위자의 뜻을 다 이해하고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순종이란 나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의 지시에 좋은 태도로 기쁘게 따르는 것 (좋은나무성품학교 정의)입니다. 진정한 순종은 이해할 수 없더라도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는 것이지요.

“지금까지는 제가 엄마, 아빠의 기도로 먹고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제 기도로 엄마, 아빠를 살게 해 드릴게요. 요즘 새벽마다 식구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새벽기도 하고 있어요.”

오래전 황당한 질문으로 순종의 축복을 깨닫게 해주었던 큰아들이 요즘은 또 다른 축복으로 우리를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좋은나무기독교학교의 교장로서, 새벽기도를 매일 쌓고 있다는 아들의 전화 소리를 들으면서, 순종의 비밀을 배움으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고 진정한 자유를 찾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게 되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더 깊이 주님을 알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진정한 순종으로 참된 기쁨을 누리도록 기도합니다. 순종이 우리에게 담담한 부담이 아니라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는 사랑의 축복이라는 것을 깊이 묵상하는 가정과 학교가 되길 소망합니다.

* 순종의 성품으로 축복의 문을 여는 성품QT의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영숙 박사의 (하루 한 편 순종묵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성품학교/주일학교 성품교육 상담전화 201-693-1976
goodtreeusa@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h3>감사한인교회</h3> <p>담임목사: 구봉주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평일오전찬양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p> <p>Tel: (714)521-0391, www.thankingchurch.com 68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p>	<h3>나성순복음교회</h3> <p>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영양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nljgusa@ehoo.com / www.nljgoc.com Tel: (323)813-4499,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p>	<h3>남가주든든교회</h3> <p>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예배: 오전 11:00 주 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금)</p> <p>Tel: (214)481-2777, facebook.com/srscs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p>	<h3>남가주사랑의교회</h3> <p>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평일 영어예배: 오후 1:20 영어학교 (중소-KDC, 킹덤트림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p> <p>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eckridge St., Anaheim, CA 92801</p>	<h3>대흥장로교회</h3> <p>담임목사: 김정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전 9:30,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찬양예배: 저녁 7:30</p> <p>Tel: (310)719-2244, www.dkcoc.org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p>	<h3>디아스포라선교회</h3> <p>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흠뻑 젖어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2:30</p> <p>Tel: (213)559-7728 (전화 팩스 겸용), Tel: (213)210-6880 2333 Beverly Blvd., L.A., CA 90057</p>
<h3>미주양곡교회</h3> <p>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오찬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매일)</p> <p>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p>	<h3>미주명안교회</h3> <p>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4부: 오후 1:45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p> <p>Tel: (213)381-2202, www.mjncd.org 170 Blinn Pl, Los Angeles, CA 90004</p>	<h3>복음장로교회</h3> <p>담임목사: 이광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일예배: 오후 7:30</p> <p>Tel: (626)8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p>	<h3>베델교회</h3> <p>담임목사: 김한오 주일 1부예배: 오전 7:15 주일 2부예배: 오전 9: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양예배: 오전 9:15, 11:30 일일예배: 오후 1:30-수일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p> <p>Tel: (949)854-4010 / betheledkc.org / www.bh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p>	<h3>세계사망교회</h3> <p>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Tel: (213)-235-76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p>	<h3>실비지 사랑교회 (Seal Beach St-Rang Church)</h3> <p>담임목사: 이정현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6:30</p> <p>Tel: (310)749-4756 실비지 리저널 클럽house 3 Lobby(주말) Clubhouse 3 room 1(수)</p>
<h3>엘매교회</h3> <p>담임목사: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p> <p>Tel: (323)737-3009, Cel: (213)215-85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p>	<h3>엘피스사역원</h3> <p>원장: 박은송 목사 (LA복음연합교회교회협동목사) 상담사역: (월-금) 오전 10:00(화-토) 오전 9:45(분당) 사역대상: 1. 여성사역자 2. 교회 밖으로 여성성도 사역: 1. 목회상담 2. 가정사역 3. 말씀사역 4. 네트워킹 사역</p> <p>www.elpisfamily.org Tel: (213)700-9928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p>	<h3>은혜인교회</h3> <p>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경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6:00(토) 연세대학교: 오후 7:20(금) 연세대학교: 오후 3:55(월) 24시간 오픈</p> <p>Tel: (714)446-6200, www.gracemc.com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p>	<h3>주님세운교회</h3> <p>담임목사: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청년) 주일 4부예배: 오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성령대리회: 오후 7:20(금)</p> <p>Tel: (310)325-4020, www.jumchurch.com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5</p>	<h3>주님의영광교회</h3> <p>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p> <p>Tel: (714)646-9259 www.socalsamsungchurch.org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p>	
<h3>코너스톤 교회</h3> <p>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p> <p>Tel: (310)530-4040(CH), www.cornestonch.com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p>	<h3>토렌스조은교회</h3> <p>담임목사: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분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45(분당)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분당) 주일 4부예배: 오후 2:00(분당) KM찬양예배: 오후 8:00(분당) 수요일예배: 오후 8:00(분당) 새벽기도회: 오전 5:30(분당)</p> <p>Tel: (310)370-5500, www.torrencecc.org 196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p>	<h3>하늘소망교회</h3> <p>담임목사: 김덕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수요일예배: 오전 6:30(토) 수요일학교: “아성경이 읽어주세요” 오전 9:30 오후 7:00</p> <p>Tel: (213)500-2348, dcbk.km@gbia.edu 3416 W. 1st St, LA, CA 90004</p>	<h3>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p style="text-align: center;">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h3>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p style="text-align: center;">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h3>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p style="text-align: center;">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목회서신



박성규 목사 (주님세움교회)

길을 열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

1950년 6월 26일 6.25 전쟁이 일어난 다음 날 밤 11시 45분에 미국 트루먼 대통령의 요청으로 UN안전보장이사회가 열려 북한의 남침을 불법화하고 유엔 경찰군 파견을 결의하던 그 순간에 소련 대표 아담 말리크는 거부권을 행사하러

고 캐딜락(Cadillac)을 타고 뉴욕 거리를 달려가던 중 UN건물 몇 블록 밖에서 자동차 엔진이 꺼져버렸습니다. 운전기사가 내려서 "곧 고칩니다"해서 기다리던 중 결국 회의에 참석치 못하여 거부권 행사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찌 우연한 일이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절망 가운데 금식하며 기도한 주의 종들의 기도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지 두 달 만에 대구와 부산만 남기고 남한은 공산군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서 부산 조광교회와 대신동 초등학교에 모여든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매달려, 일 주일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였습니다. 이 전쟁이 모두 내 탓이라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였습니다. 우리 죄

인을 구속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앞에, 날 구원하신 예수님 앞에 나와 우리 조국을 구해 달라고, 살려달라고 통곡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목사님들이 눈물로 불렀던 찬송이 387장 "멀리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곤하며 슬프고도 외로운 일이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절망 가운데 금식하며 기도한 주의 종들의 기도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주의 종과 백성들이 십자가를 붙들고 통곡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낙동강 전선을 지켜주시고,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게 하셨습니다. 여기 겸비할 때 배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회복시키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겸비할 때 일어났던 것입니다. 미군들 36,940명의 전사자의

피가 한반도에 흐르면서 비로소 미국과 한국은 혈맹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전 세계 16개국의 젊은이들이 조국 땅에 와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구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겸비하여 기도하는 자들에게 살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절망의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응답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잠 8:17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렘 29:13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라고 했고, 시 50:15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자를 통해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는 기도로 하늘의 태양을 멈추게 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로 사자의 입을 막았습니다. 엘리야는 기도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로 앗수르 왕 산헤립의 군대 18만 5천을 물리치고 나라를 위경에서 건졌습니다.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는 죽을병에서 낫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절망의 홍해가 나타날 때 원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의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의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여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songkpk@hotmail.com



월드미션대학교가 LA 코리아타운 시니어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월드미션대학교, 코리아타운 시니어센터와 MOU 체결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가를 배출 할 것"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성진 박사)와 코리아타운 시니어센터(대표 박근준)는 지난 7월 29일 한인 사회의 노인복지 분야의 공동 발전과 협력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시니어타운 코리아센터 박근준 대표, 김재원 Administrator 겸 월드미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공명철 프로그램 디렉터, 백미경, 이미영 소셜워커가 참석했으며, 월드미션대학교에서 임성진 총장, 신선목 부총장, 최윤정 대외협력처장, 이현

아 교수가 자리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월드미션대학교는 코리아타운 시니어센터(Korea Town Senior Center)를 비롯하여 크렌셔 커뮤니티 센터(Crenshaw Community Center)와 사회복지학과 재학생 현장실습 협력, 취업정보와 연계 교류, 기관장 추천으로 입학시 산학협약장학금 제공, 지역사회 서비스 교류 등을 협력하기로 하였다.이번 협약을 통해 월드미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재학생은 현장실습기회를 확충하고 전문적인 임상경

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양 기관은 사회복지분야 소셜워커를 양성하고 배출하기 위한 통로를 마련하고, 연구 교류 확대를 위한 시도로서 의미가 크다.

임성진 총장은 "노인복지 사역기관과 협약을 맺게되어 뜻깊고 감사하다"며 "앞으로 서로가 협력하여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가를 배출하는데 큰 발전을 기대한다"며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코리아타운 시니어센터 박근준 대표는 "이번 협약은 한인사회에 소셜워커를 배출하는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좋은 파트너십을 가지고 한인사회의 지위를 높이는 일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월드미션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복지 분야의 지역사회 기관과 적극적인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사회복지 전문성과 임상 현장경험, 영적 성숙을 바탕으로 한 소셜워커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월드미션대학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wmuinfo@wmu.edu에서 볼 수 있다. (기사제공 월드미션대학교)



CMF선교회 8월 정기예배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CMF 선교원 8월 정기예배

하나님의 당부... '형제 사랑'

CMF 선교원(대표 김철민 장로) 8월 정기예배가 지난 8월 6일(토) 오후 5시 CMF 선교관에서 있었다. 김철민 장로의 사회

로 시작된 세계선교를 위한 기도는 양병식 선교사(CMF 선교원 회원)가 대표로 기도하고 Paul Lee 선교사(CMF 북방선

교사)가 설교 했다.

Paul 선교사는 이사야 43장 1절-4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아픔, 그리고 당부"라는 제목으로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라고 형제 사랑을 강조했다.

이어서 Paul Lee 목사의 인도로 합심 기도를 하고 김훈석 선교사(베팔)와 김영호 선교사(예멘)가 각각 간증을 한 뒤 영명 목사의 축도로 CMF 선교회 8월 정기예배 순서를 모두 마쳤다.

(정리: 박준호 기자)

미 2세대에게 '낙태 반대'는...

(2면에서 계속)

물론 임신중지 반대 운동에 연관된 모든 이들에게 이유가 있는 건 아니다.

서른네 살, 전직 기독교인인 제니퍼 마틴은 고교 시절 임신중지 반대 그룹에서 잠시 일했다. 당시엔 임신중지가 살인이라 생각했다고 한다.

그러나 마틴은 해당 그룹에서 빠져나왔다. 스스로 엄마가

되면서 생각이 달라졌다.

"이미 임신중지를 경험한 많은 여성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또 제가 엄마가 되면서 생각을 바꾸게 됐어요. 임신과 양육이 얼마나 복잡한 일인지 깨닫게 됐죠."

마틴은 "엄마로서 '누군가 원치 않는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생각해 보면 정말 끔찍하다"고 했다.

앞서 연방대법원이 임신중지가 헌법적 권리가 아니라고 판결하면서 이 문제는 이제 각 주

의 선택에 맡겨지게 됐다. 슬레이더는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태어난 자신들이 임신중지 금지를 실현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하고 있다.

"모든 2세대가 흑인의 목숨은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는 운동을 이해하고 있죠. 기후 변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이 모든 운동들은 사회 정의를 위한 거고요. 우리는 사람들을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임신중지 반대 운동 역시 그 일환이죠."

인/터/뷰

25일-28일까지 공연될 '뮤지컬 도산'

뮤대예술인 그룹 시선(총감독 클라라 신)의 뮤지컬 도산이 오는 25일(목)부터 28일(주일)까지 라미라 극장에서 상연된다. 뮤지컬 도산은 2019년 3월 3일 로마리나대학교 강당에서 3.1 만세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처음 공연을 하게 되었으며 8월 월서이벤트 극장에서 두 번째 공연을 한 바 있다. 그리고 2020년 세 번째 공연을 앞두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공연이 잠정 연기가 되었다가 3년 만에 공연을 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뮤지컬 도산의 연습현장인 월튼교회 찾아가보았다.

클라라 신 감독은 "팬데믹으로 갇힌 삶을 경험해서인지 많은 분들이 공연소식을 접하고 응원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셔서 행복하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다만 오랜만에 연습을 하다 보니 호흡 맞추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했으며 이미 두 번 공연을 했었기에 좀 더



뮤지컬 도산

반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즉 처음 기초가 되었던 작품에 뼈대를 잘 만들고 살을 붙여서 더 단단한 작품으로 도산 안창호와 대한의 역사를 잘 보여지고 알려질 수 있도록 탄생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도산 안창호 선생 역을 맡은 최원현 씨는 "지난 공연은 도산의 일대기를 소개하는 마치 두 번 공연을 했었기에 좀 더

했다. 이번 공연에 도산의 아내인 이해련 역을 맡은 리사 리 씨와 김은진 씨는 비중있는 역을 맡게 되어 부담이 되었지만 독립운동가의 아내로서 어떻게 서포트를 해야 하는지에 중점을 두고 공연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특별히 리사 리 씨는 "이 공연을 준비하면서 도산의 가르침을 생각하게 되었다"며 "외국인으로

"뮤지컬을 통해 각자의 삶속에서 하나님의 마음 닮아가며 서로 사랑하며 힘을 모으는 작은 도산들이 많이 나타났으면..."

잘해야겠다는 마음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 같아요."라고 말하며 "이번 공연은 행복과 부담감이 교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월 첫주부터 공연을 위한 연습을 준비하게 되었다는 신 감독은 15명으로 시작해 지금은 70명 가까이 모여 연습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습 장소인 LA 한인타운으로 저녁마다 주말마다 원근각처에서 모여든 단원들의 연습의 열기는 한여름 LA의 열기처럼 매우 뜨겁다고 설명한다.

이번 공연이 지난번 공연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냐는 기자의 질문에 신 감독은 많은 부분이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두 번의 공연은 클라라 신 감독이 대본의 기초 작업을 했으며 도산 안창호 역과 연출을 맡았던 최원현 씨가 수정을 해서 공연이 올려지게 되었다. 그런데 이번 공연은 협력 연출을 맡은 김유연 씨가 내용을 대폭 수정해서 좀 더 극적인 면을 강조했다며, 음악 또한 작곡가 신원철 씨와 윤국형 씨가 작업을 했던 것을 윤국형 씨가 편곡을 다시 하면서 뮤지컬의 전

은 도산의 정신이 드라마틱하게 구성이 되어 몰입감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최원현 씨는 "특별히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크리스천으로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셨던 분이셨다"며 "뮤지컬을 통해 각자의 삶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서로 사랑하며 힘을 모으는 작은 도산들이 많이 나타났으면 한다"고 말했다.

신 감독은 최원현 씨와 함께 도산으로 캐스팅 된 백승렬 씨는 한국의 오디션 프로인 캐스팅 풀에서 1등을 차지한 실력자라며 "많은 남자 배우들 중에 이분을 꼭 모시고 싶어서 제가 삼고초려해서 모시게 되었고 함께하게 되어서 많이 감사하고 있다"며 "백승렬 씨는 또한 할머니 때부터 크리스천 가정에서 태어나 자라났으며 크리스천 독립운동가였던 도산 안창호의 삶을 재조명 하는 작품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최원현 씨는 "최원현 씨가 파워풀한 도산 안창호라면 백승렬 씨는 부드러운 도산 안창호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본다"고 말

살면서 이민사회에 잘 적응해 나가는 것을 생각하며 살았는데 뮤지컬 도산을 준비하고 이해련 여사님 역할을 맡으면서 조국 대한민국을 생각하게 되었고 이 땅에 한국을 잘 알리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김은진 씨는 "엄마로서 자식을 키우면서 가려진 몸으로 남편을 서포트해야 하는 이해련 여사의 모습에 공감을 하게 되었다"며 "연습하면서 실제로 그 당시 상황 속에 놓여 있게 된다면 이해련 여사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지만 마땅히 엄마로서 아내로서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며 살았을 것"이라 말했다. 뮤지컬 도산은 25일(목) 저녁 7시 30분 26일(금)은 저녁 8시에 공연되며 27일(토)은 오후 2시와 저녁 8시, 28일(주일)은 오후 2시와 오후 7시에 공연된다. 한편 공연이 마친 후 하와이, 밴쿠버 공연이 잡혀 있다.

▲ 티켓 문의: (562)944-9801 무대예술인그룹 시선 (213)500-5824 (박준호 기자)

동부교계 게시판

강유남 목사 은퇴 및 황용석 목사 위임 예배

뉴저지 주예수사랑교회에서 강유남 목사의 은퇴와 황용석 목사의 위임예배를 9월 4일(주일) 10시 30분 주예수 사랑교회에서 가진다.

장소: 주예수사랑교회 1155 Hendricks Causeway, Ridgefield, NJ 07657

▲문의: 201-941-5555, 201-982-2520

뉴욕초대교회 아동부 사역자 청빙

미국장로교(PCUSA) 동부한미노회 소속 뉴욕초대교회에서 아동부 (1-5) 사역자를 청빙한다.

사역내용: 아동부 학생들을 위한 주일 예배인도, 크리스마스, VBS 등 각 절기 행사,

아동부 교사 교육 및 관리

자격조건: 신학대학교 재학 이상, 아동부 한국어 설교 가능하신 분, Part Time (주일)

제출서류: 졸업/재학 증명서(신학교), 사진 포함한 한글이력서, 자기 소개서 (신양간증)

홈페이지: www.nycdchurch.com

▲문의: 김승현 담임목사 nycdchurch@yahoo.com

퀸즈한인교회 2022 교사 학부모 세미나

퀸즈한인교회에서 9월 2일(금) - 9월 4일(주일)에 걸쳐 남가주 다음세대지키기대표 이진아 전도사를 강사로 성경적 세계관, 성교육, 미디어에 관한 교사 학부모 세미나를 연다.

1강: 9월 2일(금) 8-9:30 PM - "나이별 성경적 성교육"

2강: 9월 3일(토) 4-9 PM (저녁 제공) - "성경적 세계관 및 미디어와의 전쟁"

3강: 9월 4일(주일) 1-4 PM (점심 제공) - "나는 교사입니다."

장소: 퀸즈한인교회 바울관 1층

회비: \$10 (식사 및 교재포함)

4-12세 돌봄 서비스 제공 (1인 \$20, 2인 이상 \$30)

▲등록 및 문의: 이현구 목사 718-925-1329, www.kcqny.org

필그림선교교회 EM Youth 사역자 청빙

필그림선교교회(양춘길 목사)에서 EM / Youth 사역 목회자를 청빙 한다.

자격조건: 정규신학대학 과정(M.Div) 재학 중 혹은 졸업, 컴퓨터 작업 가능, 합법적 신분

EM / Youth 사역에 대한 소명과 열정이 있는 자

제출서류: 이력서 - 본인 사진, 학위증명서(졸업 혹은 재학증명서) 포함 자기소개서(가족 사항, 소명), 신앙고백서, 설교 영상 1편, 추천서 2통

접수마감: 9월 19일 (월)

▲서류 제출 및 문의: HR@NJPMC.ORG

해외동포애국총연합회 77주년 광복절 기념식

"역사의식을 갖고 하나님 중심으로 애국운동 해나가야"

해외동포애국총연합회는 77주년 광복절 기념식을 "역사의식을 갖자"라는 주제로 8월 14일 주일 오후 5시 뉴욕새힘장로교회(박태규 목사)에서 열었다.

해외동포애국총연합회는 2020년 2월에 미동부 지역 교계 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만든 우파적 성격을 가진 단체로 박태규 목사가 의장, 송병기 목사가 이사진을 맡고 있다.

74주년 자유민주 대한민국 건국기념일을 겸해 열린 77주년 광복절 기념식의 1부 예배는 사회 김봉규 목사(부총무), 경배와 찬양 살롬찬양단(그레이스조 전도사와 송금희 전도사), 대표기도 이창중 목사, 설



해외동포애국총연합회 77주년 광복절 기념식 단체사진

교 황준석 목사(상임교문)의 순서로 진행됐다.

황준석 목사는 나훔 1:9-13 말씀을 본문으로 "결박을 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이승만의 사상을 소개했다. 황 목사는 기독교 입국론을 가지도록 이승만을 부르신 것도, 2차대전 종료와 대한민국 광복도 모두 하나님이

하셨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결국 이 모든 것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무릎을 꿇었더니 우리들의 매듭을 풀어주시고 풀어주셨다. 오늘 광복절 77주년을 맞아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만이 우리 민족과 나라의 결박도 푸시고, 하나님만이 개인들의 모든 문제의 결박을 풀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애국운동을 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부 기념식은 사회 박태규 목사(의장), 기념사 의장, 주재강연 최호의 목사, 축사 정명희 목사(직전 의장)와 송병기 목사(세계교민청 사무총장), 격려사 이만호 목사(뉴욕교협 증경회장), 축사 김희복 목사(뉴욕교협 회장), 결의문 낭독 송병기 목사, 만세 삼창 안경순 목사(박황우 목사) 등의 순서가 진행됐다.

(정리: 김재상 기자)



요셉장학금 수여식 후 단체사진

제1회 요셉장학금 수여식, 최종 10명에게 수여

"요셉의 꿈과 성실함을 가진 사역자 되길"

지난 12일(금) 오전 11시에 퀸즈장로교회(김성국 목사)에서 제1회 요셉장학금 수여식 및 감사예배가 열렸다. 요셉장학금은 퀸즈장로교회 원로목사와 장영준 목사의 뜻에 따라 새로운 사역자들의 학업지원과 양성을 위하여 요셉장학재단(대표 장미은사모)을 통해 마련됐다.

지난 6월에 요셉장학재단 설립과 장학금 신청방법이 발표된 바 있으며 신청자 중 총 10명이 최종적으로 이날 장학금을 받게 되었다. 1부 감사예배는 사회 정기태 목사(재단 재정보장), 대표기도 김수산 장로, 말씀과 축도 김성국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성국 목사는 창세기 37장 19절 말씀을 본문으로 "요셉의 비전"이라는 주제로 설교했다. 김 목사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며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펼쳐 나가신다. 하나님의 일을 펼쳐 가는 사람은 두 가지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작은 일에도 성실할 수 있는 성실함이다. 장영준 목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의 비전을 가지고 이민교회를 세우고, 신문사를 통한 문서선교의 꿈을 이어갔으며, 신학교 설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을 양성하는 일에 대한

꿈과 비전을 이루어 갔다."라고 전했다. 또한, 고 장영준 목사가 유학 시절 중국식당에서 웨이터를 하면서도 주일성수를 하겠다고 담대하게 선포하자 더 높은 위치로 승진되었던 일화를 전하며 "장학금을 받고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셉과 같이 꿈을 가지고, 성실함으로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1부 예배 후 진행된 장학금 수여식에서는 Ph.D 과정 3명(김세반 선교사, 채영준 목사, 정진호 목사), D.Min 과정 정인수 목사, M.Div 과정 6명(숙기머독 신학생, 양선우 전도사, 임지홍 신학생, 피터조 전도사, 최용명 전도사, 김태경 신학생) 총 10명에게 이천불 씨 장학금이 전달됐다.

장미은 대표는 "장학재단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전파를 위해 헌신하는 그런 겸손하고 진실한 사람을 찾게 해 달라고 수없이 기도했다. 장학금을 받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인 줄 알고 감사드렸다. 장학금을 형식적으로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장학금을 수여 받는 분들의 한분 한분 이름을 놓고 계속하여 기도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김재상 기자)



뉴저지실버선교회 20주년 감사예배 단체사진

뉴저지실버선교회 20주년 감사예배

"새로운 삶을 위한 새로운 도전"

뉴저지실버선교회 창립 20주년 감사예배가 8월 13일 토요일 오후 5시에 필그림선교회(양춘길 목사)에서 열렸다. 뉴저지실버선교회는 지난 20년간 선교사 24가정을 파송했으며, 훈련원 수료 문물들은 114개 교회 836명이다. 뉴저지실버선교회의 창립멤버는 목사 2명(양춘길, 길용남), 원성우 선교사, 장로 2명(박노식, 손영수, 김영진, 김영길, 신정하, 호민선) 등이다. 2002년 8월에 열린 창립 발기인 총회에는 34명의 발기인이 참가했으며, 훈련원 1기 훈련에 6개 교회 22명이 수료했다. 1부 20주년 감사예배는 사회 이문홍 사무총장, 찬양인도 심영구 음악선교부장, 기도 김상수 부이사장의 순서로 진행됐다. 뉴저지교협 회장 고한승 목사는 로마서 1:2-5 말씀을 본문으로 "선교의 핵심은 예수"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선교를 하기 전에 예수를 잘 믿는 것을 강조했다. 고 목사는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다. 선교하면 무엇을 하는 것에 대해 생각을 한다. 사실은 전략과 방법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복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확실히 고백하고 내가 그 은혜와 감격 속에 살아갈 때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래서 선교에 대한 전략, 선교를 잘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실버선교는 예수를 잘 믿어야 될 줄 믿는다"고 했다. 영상 축사를 통해 김재열 목사(뉴욕실버선교회 대표)는 교회마다 젊은이들이 줄어들고 나이든 분이 많아지는 시대상을 나누고, 이를 미리 내다보고 20년 전에 뉴저지실버선교회 시작했다며 여러 관계자들의 수고를 격려하고 축하했다. 초기에는 뉴저지 보다 2년 후에 시작한 뉴욕실버선교회가 뉴저지와 교육을 같이하기도 했다고 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많은 실버선교사들이 나오는 뉴저지실버선교회가 되기를 축복했다. 지용주 목사(시라큐스한인교회)는 "보통 은퇴하면 인락한 삶을 추구하는데, 그때

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선교를 위해 도전을 해 나가는 실버선교사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전했다.

임원 및 이사들의 특별찬양이 이어졌으며, 정동화 선교본부장의 헌금기도, 훈련원장 김종국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김종국 목사는 축도를 하기 전에 "모든 족속을 예수께, 이 생명 다하기까지, 새로운 삶을 위한 새로운 도전"이라는 뉴저지실버선교회의 구호를 참가 회중들과 함께 외쳤다. 2부 비전 선포 및 감사의 시간이 이흥기 홍보부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20주년 영상이 상영됐으며, 이문홍 사무총장은 지난 20주년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뉴저지실버선교회대표를 맡고 있는 양춘길 목사는 감사인사를 통해 머리가 검을 때에 실버선교회를 시작했는데 이제 완연하게 실버가 되었다고 소회를 밝히며, 특히 남미선교에서 돌아온 원성우 선교사가 앞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는 가운데 시카고 실버선교회에 다녀 온 것이 뉴저지실버선교회를 시작한 계기가 되었다고 했다. 양 목사는 선교회가 시작되도록 헌신된 설립동역자들, 지난 20년간 선교지 파송 선교사 등 헌신한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특히 오늘날까지 성장한 것은 지역교회들의 협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양 목사는 창립멤버인 박노식 선교사, 원성우 선교사, 길용남 목사에게 공로패를 증정했고, 이사장 김용철 목사는 13개 후원교회에 감사패를 증정했다.

뉴저지실버선교회 창립 20주년 주요행사 및 일정은 9월에 20주년 기념 선교장학금골프대회, 12월 3일에 20주년 기념 콘서트, 2023년 2월에 총동맹회 주관 성지순례, 2023년 6월에 미주실버선교대회 주관 및 개최 등이 계획되어 있다.

(정리: 김재상 기자)



뉴욕노회목회자가족수련회 단체사진

뉴욕노회목회자가족수련회

Rise up & Break through

지난 15일(월)-17일(수)에 걸쳐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뉴욕노회 (노회장 이윤석 목사) 목회자가족수련회가 열릴에 위치한 Honor's Haven에서 "Rise up & Break Through"라는 주

제로 열렸다. 3일간 열린 본 수련회에서 뉴욕노회 목회자들과 사모들은 예배, 찬양, 기도, 펜더믹 이후의 목회에 대한 논의 그리고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김재상 기자)

이승만 기념사업회 뉴욕지회, 광복절 및 건국기념 감사예배

"하나님 말씀에 더욱 순종하면 복된 나라, 남북통일 이룰 것 믿어"

이승만 건국대통령 기념사업회 뉴욕지회는 광복절 및 건국기념 감사예배를 지난 15일 월요일 오전 프라미스교회(허연행 목사)에서 드렸다. 예배는 사회 송윤섭 장로(사무총장), 국가제창과 순국선열을 위한 묵념과 광복절 노래 김영환 전도사, 인사 남태현 장로(회장), 대표기도 이종명 목사(부회장), 성경봉독 이광모 장로(서기), 성음크로마프리스교단(김사라 목사), 설교 황동의 목사(미주총회 이사장)의 순서로 진행됐다. 황동의 목사는 신명기 24:18 말씀을 본문으로 "기억하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황 목사는 "우리는 과거를 바로 보아야 한다. 놓치면 안된다. 좋으나 나쁘나 다 기억해야 한

다. 그리고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수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국운을 높이고 부흥시켜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면 복된 나라가 되며, 남북통일이 올 줄 믿는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소원한 자유민주국가, 기독교 국가, 미국과 같이 잘사는 건국 정신이 이루어질 줄 믿는다"라고 전했다.

이어 성음크로마프리스교단(성음연주 후 주동원 원장(코리아리서치센터)은 "광복절과 건국절"이라는 주제로 발표 시간을 가졌다. 주 원장은 "대한민국의 생일을 찾자"라며, 1945년 8월 15일은 해방을 의미하는 광복절로 기념하고, 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독립, 건국건설이라는 의미의 건국절로 제정한다고 주장했으며 "이렇게 하는 것이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는 대한민국의 역사의 흐름에 따르고, 74년 전에 이 나라를 세운 선각자의 뜻을 바로 이어받고, 앞으로 후세들에게 올바른

민족적 정통성을 알려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헌금기도 홍대순 장로(감사), 광고 송윤섭 장로(사무총장), 축도 손영구 목사(증경회장)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정리: 김재상 기자)



광복절 및 건국기념 감사예배 후 단체사진

형령·포교·방역에서 드러난 신천지의 '반사회성'

신천지의 '모략포교' 도 레드카드

최근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이단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반사회성'이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교주 이만희(91)의 횡령과 신천지 신도들의 모략포교는 물론 코로나 방역 방해 등에서도 심각성이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상징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50억원대 신천지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아왔다. 이씨는 '평화의 궁전'이라고 명명한 자신의 주거지를 지으면서 신천지 자금 약 52억원을 빼돌려 토지 매수비와 건축비를 지출했다. 또 '평화의 궁전' 행사에 사용될 배를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신천지 자금 1억 3000만원을 전달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김혜진 변호사(법률사무소 우진 대표변호사)는 "횡령 부분은 금액이 50억원이 넘는 고액인데다 수법도 좋지 않아 보통 실형이 선고되는데 이 경우 피고인의 나이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가 선택된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어 "원심보다 형이 무거워진 것은 재판부에서 이씨의 불법행위 정도를 심각히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도 "이 총회장이 신도들의 믿음을 저버리고 현금 등을 개인적으로 쓰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

다"고 적시했다.

신천지의 '모략포교'도 레드카드를 받았다. 이는 자신의 소속과 신분을 숨기고 교리를 전파해 입교시키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은 "선교행위가 정도를 벗어나 그 목적과 방법에 있어 사회적 상당성을 잃고 상대방의 종교 선택 자유를 상실시키는 정도에 이른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 선교행위도 일정한 조건에서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최초로 인정한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신천지 소속이 아닌 다른 교단 신도라고 속인 행위는 사회적·윤리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라며 신천지 포교 방식을 직접 겨냥했다. 이와 관련해 탁지일 부산장신대 교수는 "제한된 정보나 정체를 감추면서 포교한 것이 사회적 통념이나 민사법상 위법하다는 것을 적시했기 때문에, 이번 대법원에서 신천지의 포교활동에 강력한 레드카드를 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무죄가 선고됐지만 신천지의 방역 방해도 역설적으로 문제가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이씨는 일부 누락된 교인명단을 제출하는 등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아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신천지의 교인명단은 역학조사에 해당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일부가 빠진 명단



신천지 교인명단을 제출했다더라도 처벌할 수 없었고,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교인명단을 거짓으로 제출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이씨에 대한 기소 이후에 신설됐다. 비록 소급해서 이씨를 처벌할 수 없지만, 현재 기준으로 보면 이씨는 명백한 처벌 대상이 된다. 신설된 감염병예방법 79조의2 3호는 역학조사본 아니라 감염병 의심자 등에 관한 인적 사항 자료 등을 요청했을 때 따르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내면 위 시에 명단제출의무가 방역 방해 행위로 규정돼 있지 않았기에 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신천지의 행위 자체가 방역방해에 해당하는데, 대법원이 이를 가볍게 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탁 교수는 "신천지가 시설 현황과 신도 명단을 고의로 감춰기에 코로나19 확산을 적기에 막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예방한다는 공익적 측면을 완전히 무시한 것에 대한 처벌이 필요한데 이를 무죄로 본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토요일밤의 전석 매진'

청년 2000명 모인 이곳은

"여러분 우리 다시 일어나시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토요일인 지난 13일 저녁 서울 광진구 장로회신학대학교 한경직기념예배당에서 열린 위러브 예배 현장.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주어"를 외치며 뜨겁게 기도했다. 참석자 2000여 명 모두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예배를 사모하는 간절한 외침은 막지 못했다.

찬양사역팀 위러브가 이날 '다시, 갓 백 업 어게인'이라는 주제로 현장예배를 드렸다.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 국내 사역 재개를 위한 신호탄이었다. 코로나19로 예배를 중단한 지 2년 8개월 만이었다. 위러브는 지난달 사전 신청을 받았다. 7분 만에 2200명의 등록이 마감됐다. 오후 5시부터 입장이 허용된 한경직기념예배당은 행사 시작 2시간 전부터 친구 연이 가족과 동행한 이들의 긴 줄이 이어졌다. 입장을 기다리던 동안에도 참석자들은 들뜬 모습을 감추지 못했다. 서로 찬양을 부르고 입장 팔찌를 맞대고 사진을 찍기도 했다.

예배 시작 시간인 오후 6시, 예배당 1·2층을 채우고도 좌석이 모자라 서서 예배를 드리는 광경이 연출됐다. 교회 친구와

예배에 참석한 김경희(25) 씨는 "코로나로 찬양집회가 중단 되서 너무 아쉬웠다"며 "현장 예배의 중요성을 간절하게 느꼈다"고 말했다.

6시 15분, 위러브 팀원들이 강단으로 올라왔다. 장의자에 앉아 있던 청년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예배 준비를 마친 뒤 일어나 예배팀이 울라오기를 기다렸다. '공급자' '입레' '이 땅 회복하길' '어둔날 다 지나고' 등 위러브의 대표 찬양이 울려 퍼졌다. 청년들은 양손을 높이 들고 찬양했다. 찬양하며 눈물을 흘리는 이들과 구석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들도 눈에 띄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위러브 팀원들은 여러 위기를 마주했다. 그동안 보이지 않던 공동체 내 빈틈이 보이기 시작했고, 위러브의 시조인 '위러브 카페'가 경영난으로 문을 닫았다. 그럼에도 사역을 중단할 수는 없었다. 온라인으로 예배·수련회·여름성경학교를 시도했다. 위러브 대표 찬양인도자인 박은총 대표는 "팬데믹은 팀 안팎으로 내실을 다지는 시간이었다"며 "오늘 드러지는 예배가 참석자들의 삶 속에서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예배를 마친 뒤 청년들은 아



쉬움에 예배당을 쉽게 떠나지 못했다. 대학 동기들과 함께 예배당을 찾은 우예성(20)씨는 "현장 예배를 참석한 지 벌써 3년이 되어간다"며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 찬양할 수 있어 감격스러웠다"고 말했다. 현장예배에 처음 참석했다는 손다하(22) 씨는 "코로나로 상처받았던 영혼이 치유되는 기분"이라며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코로나19 방역 해제 완화로 찬양팀들의 사역은 활발해지고 있다. 어노인팅은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서울 도림교회(정명철 목사)에서 '예배캠프 2022'를 2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진행한다. 아이자야씨스티원은 다음 달부터 '유어킹덤컴(Your Kingdom Come)'을 주제로 미주 지역 사역이 예정돼 있다. 위러브는 오는 10월 새로운 앨범을 발매하고 11월 전국 지방 도시 투어를 준비한다.

예배를 마친 뒤 청년들은 아

"위기 딛고 일어나자!"

기독교 실업인 2300여명 한 자리에

전 세계 7500여 크리스천 실업인과 전문인들의 모임인 한국기독교실업인회(CBMC·중앙회장 김영구)가 15일 부산 벡스코에서 '제48차 CBMC 한국대회'를 개최했다. 한국대회가 대면 행사로 개최되기는 지난 2019년 이후 3년 만이다. 한국대회는 매년 국내외 회원이 한 자리에 모여 일터 사역의 비전과 사역을 나누고 기도하는 크리스천 비즈니스 네트워크 현장이자, 크리스천 실업인들의 영적 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 해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행 3:6)를 주제로 열린 한국대회에는 전국 280여개 지회 소속 회원 2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됐다.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쟁 장기화 등으로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등 세계 경제가 위기의 늪에 빠진 가운데 진행된 대회였기에 참석자들의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컸다.

이환태(74) 회원은 "등록할 때부터 감개무량한 느낌을 받기는 처음"이라고 했다. 이어 "관광업에 종사하는 회원들과 매주 신앙적으로 교제를 나누며 코로나 위기를 이겨냈다"며 "크리스천 실업인들과 소통하며 시대를 이길 힘을 얻고 싶다"고 말했다.

대회장 김영구 중앙회장(사진)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이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던 베드로와 요한을 기억하자"며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 동료들이 하나님을 만나 가정과 일터에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는 순간이 한국대회에서 있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개회예배 설교자로는 김문훈 부산 포도원교회 목사가 나섰

다. 김 목사는 "베드로에게 있었던 힘은 강이 아니라 성령의 부으심이었다"며 "한국대회를 통해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 사업과 신앙의 균형이 잡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광복절에 대회가 열린 현장에는 유관순 열사 등 일제강점기 시절 학생들의 민족혼을 기르는데 헌신한 프랭크 윌리엄스(1883~1962, 한국명 우리암) 선교사의 후손들도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후손 27명(사진)은 의정부 CBMC의 초청으로 방한했다. 우리암 선교사는 충남 지역 최초의 근대학교인 영명학교를 설립하고 강제 추방되기까지 교장을 맡으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몸 바치는 애국자를 기르자'를 교훈으로 학생들을 교육했다. 아들 조지 윌리엄스(1907~1994)의 이름을 '우광복'이라 지은 것도 우리나라의 광복을 염원하던 그의 소망을 담은 것이다. 우광복 선교사



또한 광복 이후 한국 기독교의 기반을 다지는데 헌신했다.

개회 현장에서는 이병진 부산시 행정부시장, 이채의 국회 조찬기도회장, 짐 핀스탈 국제 CBMC 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축사를 전했다. CBMC는 이번 대회의 목표를 '이 땅에 비즈니스 미션의 지평을 확대하고 킹덤 컴퍼니(Kingdom company)의 기반을 확충하는 것'으로 정하고 일자별 프로그램 기획 방향을 세웠다. 강사로는 김학중(꿈의교회) 윤지옥(새문안교회) 박성규(부전교회) 목사, 텔런트 김수미, 임미성 유니세프합창단 총감독, 최도성 한동대 총장, 김희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강락(케이알컨설팅) 이수정(이포넷) 대표이사 등 인사들이 나선다.

45년 만에 한국에 사무실 세운 KWMF

멤버케어·선교사역 고민

한인세계선교사회(KWMF)는 14일 경기도 안양 새중앙교회(황덕영 목사) 선교관에서 대표회장 이·취임식과 한국사무실 오픈예배를 드렸다. KWMF가 한국에 사무실을 세운 건 설립 45년 만에 처음이다.

KWMF는 1977년 6~7명의 선교사 모임으로 시작돼 이듬해 '선교사 동지회'라는 이름으로 활동에 들어갔다. 82년 선교사들의 진교를 위해 제1회 한인세계선교사대회를 필리핀에서 열었고 지난해에는 한동대에서 16회 대회를 가졌다.

KWMF가 사무실을 마련한 곳은 새중앙교회 선교관이다. 사무총장 이근희 선교사는 "전 세계 167개국, 3만여명의 선교사들을 위한 단체"라며 "한

국에 사무실이 생기면서 선교사들에게는 정체성을 찾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사무실을 한국에 마련한 첫 번째 이유는 선교사와 선교사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 총장은 "선교사들의 친목과 교제를 위한 선교사대회와 함께 멤버케어에도 나설 계획"이라며 "3만여명의 선교사 중 3분의 2는 군소 교단·단체 소속이거나 소속 자체가 없어 위기에 상황을 도움을 받기 어렵고 은퇴 후 지원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 사무총장은 "선교사들은 개별적으로 사역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지



이 교회가 수해복구를 서두르는 이유

신림동 교회 목사 "빨리 정리해야 주민 도울 수 있어"

기상관측 115년 이래 가장 많은 비가 퍼부은 서울 신림동 일대는 수해밭이었다. 지난 11일 동네에 들어서자 주변은 마치 폭격을 맞은 듯했다. 길가엔 젖은 가구들과 가전 제품, 짐이 골목마다 산더미를 이뤘다. 포크레인과 트럭 등 중장비는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 분주하게 오갔다. 다세대 반 지하 주택을 비롯해 인근 교회들도 수마를 피하지 못했다.

신림동 주택가 지하 1층에 있는 갈보리교회(강구원 목사)도 그 중 한 곳이었다. 갈보리교회는 개척하지 33년이 된 동네의 오랜 친구같은 교회다. 교회가 위치한 곳은 폭우로 참변을 당한 발달장애인 가족이 사는 반 지하 주택에서 걸어서 3분 거리에 있었다. 강 목사와

성도들은 흠으로 뒤덮인 의자와 교회 비품을 닦느라 비지땀을 흘리고 있었다.

폭우가 쏟아지던 날, 강 목사와 교인들은 교회로 뛰어가 새벽 4시까지 물길을 잡기 위해 애들바들했다. 하지만 새로 구입한 냉장고와 피아노, 전자오르간, 에어컨까지 하루 아침에 고물이 됐다. 강 목사는 "폭우로 지하 1층 예배당 천장까지 물이 들어왔고, 강대상과 교회 비품이 물 위를 둥둥 떠다니더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교인들은 복구 작업을 위해 휴가를 반납하거나 회사에 반차를 내고 교회를 원상복구하는데 힘을 모으고 있었다. 짐을 나르고 청소하는 교인들의 팔다리는 진흙투성이였다. 옷과 신발은 땀과 물로 젖어있었다.

갈보리 교회 창립 멤버인 문미선(51) 권사는 "교회가 유독 피해를 많이 입긴 했지만 이렇게 큰 피해는 처음"이라며 "교회가 완전히 복구되는 데까지는 6개월 넘게 걸릴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강 목사는 "아마 신림동 지역에서 피해가 가장 큰 교회일 것"이라며 "빨리 교회부터 정리를 해야 지역 주민을 도울 수 있어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갈보리교회 외에도 인근 A교회 역시 지하에 물이 차들었다. 교회 관계자는 "창고에 있는 교회 비품이 엉망이 됐다"며 "어디서부터 정리를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망연자실한 표정이었다.

이번 수해 현장에서도 교계의 신속한 긴급구호가 빛을 발했다. 지난 9일 폭우 소식을 접한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은 즉각 구조물품을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봉사단 사무총장인 이석진 목사는 "폭우 발생 직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왔다"고 말했다. 폭우가 그친 지난 10일 봉사단은 피해가 큰 관악구 지역으로 향했다. 차량에는 긴급구호키트 500개가 실려 있었다. 키트에는 수건 물티슈 컵라면 고무장갑 휴지 에너지바 칫솔 치약 등을 담았다.

긴급구호 현장에는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한사람교회(서창희 목사) 봉사팀도 합류했다. 이들은 관악구 신사동 수해 피해 가정에 구호키트 100개를 지원했다. 이어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동작구 남성사계시장에는 각각 200개씩 전달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11일까지 구호키트 전달을 이어갔다. 서창희 목사는 "연합봉사단을 도와 지역 주민들을 도울 수 있어 매우 감사하다"며 "피해 복구가 빨리 이뤄져서 지역 주민들의 일상이 회복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연합봉사단체인 한국교회봉사단과 국민일보도 이번 폭우로 고통받고 있는 교회와 이웃을 돕기 위해 모금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한국교회봉사단 김철훈 사무총장은 "현재까지 수해피해를 입은 교회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면서 "성금은 피해를 당한 미자립교회와 지하교회 구제를 위해 쓰일 예정"이라며 한국교회의 관심과 동참을 요청했다.



한국선교연구원(KRIM)에 따르면 전 세계 한국인 선교사는 2만3000여명이다. KWMF는 통계에 들어가지 않은 선교사 7000여명을 포함해 3만여명 중 3분의 2가 재대로 된 케어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효율적인 선교 사역 방법도 모색할 계획이다.

이 사무총장은 "선교사들은 개별적으로 사역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지

역별 선교사 네트워크를 만들어 사역을 확장하는 방법도 찾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KWMF는 이날 대표회장 이·취임식도 진행했다. KWMF는 지난해 4년을 이괄형인 이은용 방도호 여성호 선교사가 차세대로 1년씩 대표회장직을 맡는다. 강 선교사에 이어 이 선교사가 1년간 KWMF를 이끈다.

교회선교의 선순환 (virtuous cycle) (15)



조용중 선교사 (KWMC 사무총장, Ph.D)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

최근 웰스트리트저널에서는 조용한 퇴사 (Quiet Quitting) 라는 단어로 새로운 세대의 면면을 표현하여 주었다. 이 단어는 1989년 이후 태어난 세대의 일하는 자세를 표현하고 있다. 이들은 회사를 그만두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를 다니면서도 자신이 회사를 위해서 온전하게 일해야 한다는 개념이 약하다. 회사의 일보다는 자신의 다른 일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최소한의 일만을 하는 세대, 회사에서 마음은 이미 떠났으나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포기하지 않은 세대의 자세를 일컫고 있다. 우리는 이런 모습에서 앞으로의 세상을 책임질 젊은이들이 무엇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는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며 이들을 위한 교회의 자세는 어떻게 되어야 할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이 세대는 이전의 세대와 같지 않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긍정적인 면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을 만큼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관심을 가질 만한 재미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교회는 이 세대가 무엇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재미를 느끼는지 연구하고 진정한 기쁨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이 세대는 기존의 교회에 큰 헌신이나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다. 그렇기에 오히려 교회가 매력적인 곳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이 전 세대보다는 더 크다고 할 것이다.

둘째로, 이 세대를 위한 교회의 프로그램이나 성경공부는 자연보호에 대한 관심(creation care) 과 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시며 교

잡아 단계적으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선교의 프로그램은 일생을 모두 드리는 장기간 헌신을 요구하기보다 단기간이라도 재미있게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젊은이들은 삶을 유지시



전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말로 하는 것보다도 삶으로 복음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 달라는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가진 대상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이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께서 이 세대 젊은이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로, 그들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 세대의 특징은 다양성이다. 미국을 예를 들면 Z세대의 구성은 52%의 백인, 25%의 히스패닉, 14%의 흑인 그리고 4%의 아시아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만큼 다양한 인종적 배경 속에서 자라며 이 상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세대이다. 그렇다면 교회는 이런 변화를 주시하고, 여기

전에 제자들을 위한 기도에서 “그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안에 있는 모습을 세상이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으로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라고 말씀하셨다. 세상이 우리를 보기 전에 GenZ 젊은이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가 곧 교회에서 실천되는 현장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기록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시라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요17:11)

예수께서 제자들을 떠나기 직전에 아버지께 기도드린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에 남아 있

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남아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로서 (16절) 아버지의 말씀, 곧 진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17절) 라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의 삶에서 맞이하게 될 도전을 피하도록 데려가 달라는 것이 아니라 (15절), 그 도전을 이길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호하고 지켜달라는 기도이다. 그런데 이 기도는 당시의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도 드린 기도이다 (요 17:20). 여기에 Z세대가 포함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음 세대는 예수님의 기도가 가장 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세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다양성을 인정하는 세대이며, 가장 연약한 자들에게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진 세대, Z세대가 교회의 주역을 이루는 때가 오면 예수님의 삶을 가장 잘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세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했던 세대의 헌신은 많은 열매를 맺기도 하였으나, 그만큼 많은 부작용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교회나 회사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세대, 일이나 가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세대, 하나가 좋다면 다른 것은 틀리다고 생각해야 하는 세대를 지나고 있다. 이제 새로운 세대가 이미 우리 곁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다름을 틀림이라고 바로 정의하지 않는 세대가 우리 곁에 와 있다. 이들을 맞이하는 교회는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진리가 진리됨을 삶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도전을 맞이하고 있다. 다른 어떤 커다란 음성보다도 더 큰 울림으로 우리들의 삶에서 진리를 살아내는 내일을 맞이한다면 교회는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를 살려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놀라운 움직임으로 환영할 수 있을 것이다.

dr.yongcho@gmail.com

이전 세대와 다른 새로운 세대, 그들의 긍정적인 면을 눈여겨보자!

셋째로, 이들 세대는 다른 것을 돌아볼 여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직장과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평생 일만을 위해서 살았던 세대와 다르게 재미가 있다면 다른 분야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여유를 찾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전의 세대는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을 포기해야 하는 압박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세대는 일을 하면서도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

회가 진정한 공동체가 되는 것을 기대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다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신들이 살아갈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게 보여지는 자연과 사물, 사람의 상황에 대한 연민이 더욱 크다. 자연파괴와 훼손에 대한 관심이 크다. 그렇다고 완전자녀주의로 회귀하는 것은 아니다. 셋째로, 헌신의 기간을 짧게

켜주는 직장과 삶에 풍요를 더해주는 밸런스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직장의 일은 최소의 투자만을 생각하는 세대들에게 무조건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것은 첫번째 단계에는 쉽지 않은 것일 수 있다.

넷째로, 단기선교 내용은 직접적인 전도보다도 약한 자들에 관심을 가지고 돕는 프로그램과 자연보호의 내용을 단기선교 중점적인 프로그램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복음

에 대응할 수 있는 다민족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단기선교팀이나 다양한 프로젝트를 이렇게 다양한 민족들이 함께 섬기는 모습은 이 세대들에게 교회의 참된 모습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이를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하는 이웃교회들과 함께 팀을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은 시도가 될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직

을 것이라고 말한다.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지만, 그들은 남아 있을 것이기에 모든 시험과 도전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끊임없이 저들이 떠나가 되지 못하도록 시험하고 유혹하고 방해하고 도전하는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렇기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호하여 달라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다.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이 세상에



인문학으로 읽는 바울의 생애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USA대표)

34. 헤롯 가문을 소개합니다 ⑤ 헤롯 아그립바2세

헤롯 왕 권속 중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성경에 언급된 사람들을 찾아 봅시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안나는 자신의 재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깁니다(눅8:3). 헤롯 안디바의 젖동생 마나엔은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됩니다(행13:1). 헤롯의 아들 아리스토틀로스 집안은 로마 교회 성도(롬16:10)였던 것 같습니다(추후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그러나 헤롯 가문의 왕들은 대부분은 반 기독교적인 정책을 펼쳤고, 예수님을 박해하거나 기독교 신자를 박해하는 악역을 맡았습니다. 헤롯 가문의 최악은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45회 등장합니다. 특별한 설명과 이름에 대한 구분이 없이 사용됨으로 헤롯에 대한 이해가 모호합니다. 성경의 헤롯들과 헤롯 가문을 이해하는 것은 로마와 유대인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다섯 자녀, 즉 헤롯 갈기스, 헤롯 아그립바1세, 아리스토틀로스, 헤로디아, 마리암네를 낳았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아리스토틀로스가 아리스토틀로스 4세로, 로마 16장 10절에 등장하는 아리스토틀로스

래서 아그립바2세는 당분간 로마 황궁에 머물고 파두스에 이어 티베리우스 알렉산더가 유대 총독으로 파견됩니다. 이 알렉산더가 필로의 조카입니다.

아그립바1세 자녀들의 삶이 기구합니다. 베니게는 알렉산더의 동생 마르쿠스 알렉산더와 결혼했는데 그가 요절하였고, 삼촌인 칼키스의 헤롯과 결혼했는데 그도 죽습니다. 오빠인 아그립바2세와 같이 지내다 근친상간의 소문이 돌자 갈리기가 왕과 재혼하였다 곧 이혼합니다. 후에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티토(Titus)장군이 베니게를 사랑합니다. 티토 장군은 베니게를 사랑해서 그녀를 로마까지 데리고 가지만 로마 사람들이 그녀를 용납하지 않자 티토는 독신으로 살

자인 아그립바2세가 헤롯 가문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는 가이사라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사도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재판 받기를 간청할 때 가이사라를 찾아가 바울을 만납니다. 아그립바2세는 벨릭스의 후임으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에게 베니게와 함께 인사하러 가이사라를 방문합니다.

사도행전에는 헤롯 안디바(행4:27), 헤롯 아그립바1세(행12장) 그리고 헤롯 아그립바2세(25장)가 등장합니다. 헤롯 아그립바 1세는 기독교 신앙인들을 박해하면서까지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 했고, 그의 야욕과 교만 그리고 죽음을 언급합니다. 사도행전 25장은 아그립바2세가 바울의 무죄를 알고도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을 암시적

기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세푸스는 아그립바1세를 동포인 유대인을 위한 정책을 쓰고, 예루살렘에 즐겨 거하고, 율법 제사를 준수했으며, 유대인의 회당 문화를 보장한 왕으로 묘사합니다. 특히, 아그립바1세가 뛰어난 정치력과 설득력으로 가이우스 칼리굴라황제와 클라우디우스 황제 등극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역사를 남깁니다.

요세푸스와 유사한 관점을 가진 역사가는 알렉산드리아의 필로입니다. 필로는 간략하지만 아그립바1세를 긍정적으로 묘사합니다. 필로의 조카가 아그립바1세 딸 베니게와 결혼했으니 아그립바1세와 사돈이었습니다. 필로는 가이우스 칼리굴라황제의 무도함을 비난하면서, 아그립바1세는 유대 신앙에 독실하지만 유약한 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역사가들이 그리는 아그립바2세는 로마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답게 철저히 친 로마적인 행보를 보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같은 로마 황실 인맥도 없고, 시대적 환경도 만만치 않아서 무기력하게 왕좌를 지키다 70년경에 예루살렘 패망 때 로마로 가서 로마 행정관이 되었으며 AD 100년 경에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헤롯 가문이 몰락했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chap1207@hotmail.com

6대에 걸쳐 90년간 유대 땅 지배한 헤롯 가문 ... 마지막 왕 헤롯 아그립바2세 대부분 헤롯 가문의 왕들은 반 기독교적인 정책, 예수님을 박해, 기독교 신자 박해

아니라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헤롯 가문 중에 헤롯 대왕과 방불한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 헤롯의 손자 헤롯 아그립바 1세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리스토틀로스는 하스몬의 왕족 마리암네의 아들입니다. 아리스토틀로스는 고모 살로메의 딸 베르니게와 결혼하여

니다.) 헤롯 아그립바1세는 네 남매를 남기고 54세에 죽습니다. 이렇게 낳겨진 네 남매는 당시 17세였던 아그립바2세와 16살의 베니게, 마리암네 그리고 드루실라입니다. 당시 정세를 보아 약관 17세의 아그립바2세가 아버지 아그립바 1세를 이어 유대를 통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었다고 전해집니다.

48년에 칼키스의 헤롯이 죽자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친구의 아들인 아그립바2세에게 칼키스의 통치권을 주고, 이어 유대지역 왕으로 세웁니다. 이어서 53년에 헤롯 빌립의 지역도 헤롯 아그립바2세에게 넘겨줍니다. 아그립바 2세는 유대 지방에 왕이 되었습니다. 헤롯 대왕의 증손자요, 비운의 왕자 아리스토틀로스의 손

로 지적합니다.

사도행전과는 달리 요세푸스는 아그립바1세와 아그립바2세를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요세푸스는 아그립바2세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습니. 자신의 글을 아그립바2세에게 보여주고, 자료도 제공 받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런 관계를 고려하면 아그립바2세나 그의 아버지 아그립바1세를 비판하는 기록을 남

우간다

“모든 무거운 것과 열매가 가벼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히 12:1)

우간다에서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모두가 건강하신지요? 저희는 큰아들 결혼예식에 참석 차 한 달간 미국 체류 중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며 몸이 지쳐 있을 때 코비드 확진으로 한 주간 꼼짝없이 집에서 격리(쉬게) 하도록 하신 하나님 은혜에도 감사드립니다. 우간다는 저희가 떠날 무렵부터 건기가 시작되어 나뭇가지에도 흙먼지가 내려앉아 온통 브라운 세상으로 변해 있었는데 단기선교팀이 떠난 지난 금요일부터 조금씩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소식) 2학기도 벌써 한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4월 경찰 태권도팀을 초청 시범 공연, 6월 GBS Hero 선발대회, 7월 VBS(성경학교) 등 알찬 학기가 3 주간의 방학 후, 9월 5일부터는 3학기가 시작됩니다. 저희가 떠나 있는 동안에 현지 동역자들이 성실하게 일하도록 지켜주심에 감사드리고 기도에도 응답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지난주 뉴욕에서 방문한 단기선교팀이 학생들과 미니 올림픽과 VBS를 하고 선생님들을 위한 일대일 훈련을 함께 할 수 있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한 열매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

고 문제를 일으키는 차량들 중 한대를 교체하려고 애를 썼으나 여의치 않아 스쿨 밴 2대의 엔진을 교체하는 대수술을 감행했습니다. 문제없이 몇 년 잘 사용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춘기를 보내는 7학년 학생들이 11월 초에 있을 국가고시를 준비하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서 안타깝지만, 최선을 다해 배우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교가 위치한 지역이 도시화되면서 범죄와 치안이 안 좋아져서 철조망으로 되어 있던 담장 일부를(40 미터) 벽돌 담장으로 바꾸었습니다.

(뉴욕 퀸즈한인교회 단기선교팀) 저희가 파송을 받고 큰애는 첫 번째 단기선교팀으로 오기를 원했습니다. 팬데믹 중에도

영어권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합심하여 준비하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해 동안 단기선교팀을 후원하고 기도하다가 막상 단기선교팀을 맞게 되어 하나님의 섭리는 참 오묘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2년이 넘도록 수영장에도 못 가고 소풍이나 수학여행도 엄두를 못 내었다가 골든베리스쿨의 학생들과 선생님들만을 위해 멀리서 여러 가지들을 아낌없이 준비해 온 팀의 방문은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잔치였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현지인의 도움을 최소한으로 받고 있어서 부역일이 만만치 않은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날개 없는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귀한 만찬으로 베푸시고, 팀 멤버들과 바쁜 중에도 순교자



박물관을 견학하고, 함께 찬양과 묵상의 시간도 가지면서 단기선교팀은 저희를 위해서 보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위로의 선물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밀하시고 친절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선교사 소식) 큰아들 Davy 가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 예식을 잘 마쳤습니다. 많은 친구와 친지분들

이 먼 뉴욕까지 오시고 축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결혼 한 달 만에 우간다 단기선교팀을 인솔해 와서 교직원들과도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2022년 8월 5일 우간다에서 안정근 & 정미향 선교사 올림

선교 펴기

케냐

- ELGEYO-MARAKWET, KENYA, AFRICA -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누가복음 6:36)

존귀하시고 참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프리카 케냐 마라켓 부족 산지에서 문안드립니다. 이곳에서 주어진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기쁨으로 섬길 때, 때로는 여러 상황 가운데 도전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다시금 선교사로 하여금 힘을 내어 섬기고 사랑하게 하는 것은 주님께서 죄인 중에 괴수인 저를 구원하시고 선교사로 불러주신 한없는 사랑과 자비를 기억할 때와 지금도 누군가 케냐와 마라켓 부족을 위해, 그리고 저희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입니다. 기도와 사랑으로 저희와 함께 동역해주셔서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지만 오늘도 주님께서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며 또한 우리의 기도와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심을 확신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기도편지를 보내드립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들어간 깊은 산지에서 발견한 보석 같

은 하나님의 백성들 한 지역교회로부터 주일 설교와 성찬식을 인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3 시간 정도 운전할 것을 예상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여기저기 움푹 파인 길 탓에 차 뒤쪽 스프링이 부러지기도 했습니다. 목적지가 가까운 곳까지 가서 차를 세워두고 오토바이를 타고 깊은 산중으로 들어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가시나무를 헤치며 걸어가면서 이런 외진 곳에 어떻게 교회가 모이고 예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너무나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보석 같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여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과 예배를 드리고 그들에게 간절히 말씀을 전하고 함께 떡을 떤다고 잔을 나누며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였습니다. 선교사로서 특별히 감사했던 것은 아무리 외진 곳이라 하더라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으시고 한량 없는 사랑과 은혜로 한 사람을 찾으신다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이 감사합니다. 이 교회의 이름은 캅토라 교회입니다. 보석 같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교회로 성장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기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아를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생명샘 학교 어린이들과 함께 (어린이들은 투루카나 부족 고아들이지만 돌봄을 위해 저희 지역으로 보내졌습니다. 생명샘 학교는 저희 협력 교단인 아프리카 내지 교회 교단 소속 미션스쿨입니다) 처음 이곳을 알게 된 것은 케냐 북서쪽에 투루카나라고 하는 메마르고 가난하며 환경이 너무 열악한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서 42명의 고아가 저희 지역으로 보내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어린이들을 찾아갈 때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역교회와 함께 어린이들을 돌고 교육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일에는 주님께서 특별한 마음을 주셔서 저희 선교센터에 생명샘 학교 선생님들과 어린이들을 초청하여 예배하고 교제하는 귀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즐겁고 기쁜 것, 아픈 것과 슬픈 것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어린이들, 몸이 아파도 아프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조용히 눈물만 흘리는 아이들, 그러나 이날만큼은 어린이들의 큰 웃음소리가 산지의 바람을 타고 온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할 때 분명히

주님께서도 큰 웃음을 지으셨을 줄 믿습니다. 투루카나에서 마라켓 부족 땅으로 보내진 요셉과 같은 아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해 가며 하나님 나라를 케냐와 열방에 선포하는 리더들이 되도록 계속 기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메삭 기프루토 (Meshack Kipruto)를 위해

또 다른 어느 주일, 한 지역교회로 말씀을 전하러 갔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교회 목사님께서 심방을 부탁했습니다. 메삭이라고 하는 남자아이가 있는데 많이 아파서 그 부모님이 선교사에게 기도를 부탁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걸어서 메삭의 집으로 갔습니다. 10대 초반의 소년이 마당 땅바닥에 얇은 천을 깔고 누워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얘기를 들어보니 암이라고 합니다. 약 3시간 거리의 타운에 있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목 뒤쪽으로 암이 있다고 들었고 앞으로 치료를 받을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메삭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에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메삭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간절히 메삭의 치유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메삭을 생각하며 다시 기도할 때에 이곳의 열악한 의료시설과 환경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



참 건강하게 뛰어다니고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메삭이 아픈 가운데 있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메삭의 치유를 위해 기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기적을 베풀어주시기를 기도해주시시오. 메삭이 꼭 치유받아서 모든 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메삭이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기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족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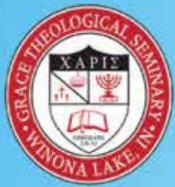
저희 가족은 계속해서 나름 디아스포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닌 아빠는 케냐 마라켓 부족 지역에, 막내 운유는 아빠와 8시간 떨어진 미국 버지니아에, 기쁨 이는 얼마 전 휘튼에서 버지니아로 왔고, 사랑이는 린치버그에서

학교 생활을 합니다. 할머니는 가족들이 늘 떨어져 있는 것을 항상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이제 다음 주면 다시 가족이 잠시라도 함께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움은 사랑의 깊이를 증명하는 듯합니다. 감당해야 할 선교의 사명과 현재 허락된 상황으로 지구 반대편에 서로 떨어져 있으며 그로 인해 마음이 저리고 그리움이 쌓여간 만큼, 다음 주에 있을 재회의 시간도 더욱 기쁨과 감사가 넘치리라 믿습니다.

케냐와 저희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Asante kwa Kutauombea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Mungu awabariki “축복합니다!”

케냐 마라켓 부족 마을에서 윤진수 선교사 드림



GRACE THEOLOGICAL SEMINARY

1. 84년 역사와 전통을 지닌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보수적인 복음주의 신학교(ATS정회원)
3.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나 수강할 수 있는 100% 온라인 프로그램
4. 선교지 신학교나 현지 대학교에서 강의 가능한 학위 프로그램
5. FAFSA(연방정부 장학금) 지원 가능(영주권자 이상) 및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과정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 목회학 박사과정(D.Min)
- + 목회전공
- + 선교전공

2022년 가을학기 수업일정

8월 22일-10월 16일
DI 8150 Contextualization for Ministry (효과적인 사역을 위한 상황화)

10월 17일-12월 18일
DI 8140 Cultural Anthropology (사역을 위한 문화인류학)

2023년 봄학기 수업일정

1월 9일-3월 5일
DI 8280 Doctoral Research Methods (사회조사 방법론/논문작성법)

3월 13일-5월 7일
DI 8410 Spiritual Conflicts (영적 치유)

한국어로 취득할 수 있는 ATS승인 100% 온라인 박사학위과정입니다.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seminary.grace.edu

총장: Dr. Drew Flamm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E-mail: gtskoreanstudies@grace.edu 카톡 ID: KoreanGTS

대표전화: 574-372-5100 (ex 6335), 574-334-7980(한국어)

요셉의 비전을 품은 그들의 이야기와 찬양

“끝이 아닌 시작... 계속 이어가는 요셉의 꿈”

교육 중심 목회를 해온 고 장영춘 목사의 뜻을 담아 설립된 요셉장학재단 (대표 장미은 사모)이 8월 12일 오전 11시에 퀸즈장로교회 본당에서 제1회 요셉 장학금 수여식 및 감사예배를 열었다. 요셉 장학금 수여식 및 감사예배를

▲속키머독 신학생 (Assemblies of God Theological School of New York, M.Div)

요셉장학재단을 처음 들었을 때 고 장영춘 목사님의 마음이 느껴졌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끝까지 섬길 수 있는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귀한 재단과 학생들을 키우시겠다는 그 마음이 전해졌다. 부족하지만 '그러한 자가 되어서 다음 세대를 이어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김성국 목사님의 '요셉의 비전'에 대한 말씀을 통해 요셉을 끝까지 닮고 이것이 끝이 아니고 이것이 시작이고 여기에 열매를 맺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요셉이 장영춘 목사님과 같은 또 다른 요셉을 낳고 제1회 요셉 장학생을 통해서 그 일이 어느 곳에 있는지 계속 이어가도록 기도하겠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다. <찬양> "예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Praise the Lord Jesus/ Praise the Lord Jesus/ Praise the Lord Jesus/ Hallelujah

▲김세반 선교사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 Ph.D)

국제도시선교회 ICM에서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선교와 복음 전파의 중요성을 깨달아 아버지가 걸어간 그 길을 가고 있다. 이제 어떻게 한인으로서 선교를 잘 감당해야 하는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저희 아버지 세대들은 미국에 와서 교회를 잘 세우고 목회를 잘 하시어 이 세대에 복음을 잘 넘겨주셨는데

'우리 때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다민족과는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고 트리니티 교수님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박사과정 에 입학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했는데 학비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에 대해 어려워하고 있는 가운데 아버지께서 요셉 장학재단의 기사를 참조하라고 보내주셨다. 기도로 준비하였지만 '실마 될까'하는 마음으로 지원하였는데 장학금 수여에 대한 연락이 와서 정말 감격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입학할 준비하게 되었다. 너무 그 은혜에 놀랐고 너무 감사했다. <찬양>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못해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사랑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감사해요

▲채영준 목사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Ph.D)

박사과정으로 작년에 졸업 예정이었는데 논문수정을 해야 해서 1년 더 공부해야 했다.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과 함께 재정적인 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을 때 요셉장학재단 광고를 보고 장학금을 지원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받아서 계속 공부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잘 마쳤으면 좋겠다. 생각해 보면 장영춘 목사님과 인연이 많다. 저희 가족이 이민 와서 처음 퀸즈장로교회에 다녔고 유아세례를 장영준 목사님께 받았다. KAPC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에서 안수를 받았고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에서 강의를 했고 요셉장학재단에서 장학금도 받게 되었다.

정주의 사모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리고 이번 학기에 정말 부족한 학비가 장학금으로 받은 금액이었다. 요셉장학재단의 좋은 기회가 있었다 들었을 때 너무 기쁘고 받은 줄

마친 후 김성국 목사(퀸즈장로교회 담임)의 인도로 요셉의 비전을 품은 장학금 수여자와 그의 가족의 소감 및 찬양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속키머독 신학생

을 알고 기도했다. 재정적인 것도 감사하지만 저희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사역하고 1세 목사들을 잘 본받고 2, 3세대들을 잘 양육하도록 하겠다."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피터조 전도사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M.Div)

피터조 전도사는 수련회 강사로 참석 중이라 대신 그레이스 조 사모와 딸 수연이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레이스 조 사모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찬양했다. 또한 딸 수연이는 이 시간에 웅얼이로 함께 했다. <찬양> "Amazing Grace"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blind but now I see

▲정인수 목사 (Global Reformed Seminary, D.Min)

늦은 비인데 하나님께서 굵



피터조 전도사 가족 (그레이스 조 사모, 수연)

게 쓰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 목회하기 위해서, 선교하는 데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채워주셨다. 주위에 여러 도움을 주시고 큰 응원을 해주어 감사하다고 했다. 요셉의 꿈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씨를 뿌려 열매가 이어갈 수 있는 사역을 감당하겠다. <찬양>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안하다/ 내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영혼 평안해

▲임지홍 신학생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M.Div)

소감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눈물로 시작했다. "지금 와서 보니 하나님의 은혜였다. 미국에 와서 한의학을 공부하게 하시고 신학의 길로 인도하심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김세반 선교사



채영준 목사 가족 (정주희 사모, 채고은, 채소은)



정인수 목사와 김신정 사모



임지홍 신학생

순서지에 등대 그림이 있었다. 주님이신 등대를 바라보며 나아가겠다. 요셉의 꿈을 품고 나아가겠다. 장학금이 나에게 기대와 격려와 관심을 통해 더 잘해야겠다는 채찍이며 요셉장학재단의 사랑과 관심은 당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은 장학금을 받는 자가 되었지만 언젠가는 주는 자가 되겠다. <찬양>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

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값을 길 얻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 밟음도/ 나를 불드시는 하나님 은혜

찬양의 시작은 장학금 수여자가 했지만,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이 한마음, 한 입으로 주님을 찬양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 모두가 한마음이었고 한 입으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시간이었다.

<홍현숙 기자>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 주최

제8회 신앙도서 독후감 모집

- 대상: 한국을 제외한 해외 거주 한인 평신도, 목회자, 선교사, 사모 등
- 방법: 추천도서 5권중 한권을 선택하여 읽은 후 독후감을 제출하되 분량은 레터 또는 A4 사이즈 3페이지(글자크기 10포인트, 줄간격 160%)이며 제출 마감은 2022년 10월 31일 오후 5시(미 서부시간 기준)
- 제출처: 이메일 wkcmmailbox@gmail.com으로 제출하되 응모자의 이름, 직분, 출석교회,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를 꼭 명기해 주십시오
- 시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11월 15일경 발표합니다. 이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각각 US \$500, \$300, \$200씩의 부상이 전달되며 선정된 독후감은 본 협회 회원사들의 지면 및 인터넷 신문과 방송을 통해 발표됩니다. 시상식은 12월 초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 *참가자 전원에게는 참가상이 주어집니다
 - *이미 수상 경력이 있으신 분은 3년 동안 수상대상에서 제외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한인 크리스천들이 양질의 신앙도서를 읽고 믿음과 삶, 그리고 사역이 보다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본 언론협회는 제8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사 남미복음신문(상파울, 브라질), 미주기독신문(시애틀, 미국), 미주기독교방송(LA, 미국), 미주복음방송(애너하임, 미국), 미주크리스천신문(뉴욕, 미국), 아멘넷(뉴욕, 미국), 크리스천 투데이(LA, 미국), 크리스천 리뷰(시드니, 호주), 크리스천 미디어(시애틀, 미국), 크리스천 위클리(LA, 미국), 크리스천 타임스(샌프란시스코, 미국), CHTV크리스천 헬월드(LA, 미국), 크리스천 저널(시카고, 미국).

후원 기독교서점협회(회장 전인철 목사)

도서구입처 기독교서적 323-737-7699 www.koramdeo.com
 두란노서원 213-382-5400 www.duranno.us
 말씀사 714-530-2211 www.lifebook.co.kr

복음사 562-865-4949
 도르가 서점 714-636-7430

추천 도서



하나님을 말하다 림 켈러 두란노 | 안심하라, 하나님의 마음은 완벽하다 김성경, 토기장이 | 먹다 듣다 걷다 이영려 두란노 | 내 마음도 설 곳이 필요해요 유은정 규장 | 한달란트 박성현 두란노 | 꽤 괜찮은 해피엔딩 이지선 문학동네

주최: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회장 이영선 목사) World Korean Christian Media Association